




*
나 내어 주고
자유로 사느니 겨울 내 무어. 

생명을 갖는 신의 섭리로 내 삶의 실을 또 한줄기 엮어내었습니다.
기쁨과 슬픔, 절망과 희망, 꿈과 노래가 있어 이 매듭 더욱 단단해 집니다.

한국 YWCA

11+12

Vol. 486 / 2011

너를 위하여

● 김남조

나의 밤 기도는
길고
한 가지 말만 되풀이한다

가만히 눈 뜨는 건
믿을 수 없을 만치의
축원

갓 피어난 빛으로만
속속들이 채워 넘친 환한 영혼의
내 사람아

쓸쓸히
검은 머리 풀고 누워도
이적지 못 가져본
너그러운 사랑

너를 위하여
나 살거니
소중한 건 무엇이나 너에게 주마

이미 준 것은
잊어버리고
못다 준 사랑만을 기억하리라
나의 사람아

눈이 내리는
먼 하늘에
달무리 보듯 너를 본다

오직 너를 위하여
모든 것에 이름이 있고
기쁨이 있단다
나의 사람아.

한 해를 보내며 다시 음미해보는 김남조 시인의 아름다운 사랑시입니다. '이적지 못 가져본' 사랑을 만나고 밤새도록 그리워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는 애뜻한 마음. 위대한 것보다 절실한 것을 바라는 시인은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모자라는' 그 사랑으로 더욱 성결해집니다. '너를 위하여/나 살거니/소중한 건 무엇이나 너에게 주마'고 말한 다음 순간 '이미 준 것은/잊어버리고/못 다 준 사랑만을 기억하리라'고 다짐하지요, '갓 피어난 빛으로만/속속들이 채워 넘친 환한 영혼'을 지닌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50년 전 어느 날 저녁, 촛불을 밝히고 시를 쓰는 시인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표지 류연복

판화가이며 서예가이자 시인인 류연복 선생님은 1980년대 벽화 운동, 민중 목판화 운동의 중심인물이자 우리 산의 아름다움을 담은 진경산수 판화로 유명하다. 2008년 YWCA 독도사랑 캠페인에도 판화역사로 함께하였으며, 현재 안성에 살면서 작품활동과 함께 환경운동, 공동체운동에 몸담고 있다.

Contents

- 02 • 시·시인·시심 _ 너를 위하여 _ 김남조 | 고두현
- 04 • YWCA 현장 속으로
- 06 • 연간기획 _ 청년정의운동 I _ 행복의 차원 | 전병주
- 09 • 청년정의운동 II _ 세상의 변화는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 | 송대규
- 12 • 청년정의운동 III _ 내가 나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 이은선
- 15 • 세계YWCA&YMCA 국제친선 및 기도주간
- 16 • 되찾은 영성, 올림 _ 11, 12월 YWCA월례아침기도회
- 18 • zoom I _ 제6차 YWCA정의포럼 | 편집실
- 20 • zoom II _ 성인지정책 모니터링운동과 한국YWCA 운동 | 박동순
- 22 • zoom III _ 2011 2차년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을 마무리하며 | 최지혜
- 24 • 회원이야기 _ 2011년 한 해를 돌아보며 | 박영선
_ 2011년 한 해를 돌아보며 | 박정순
- 26 • 이슈따라잡기 _ 2011 노벨평화상, 여성을 선택하다 | 김지숙
- 28 • 문화공감 _ 애정남, 공평한 '물'의 부재가 낳은 환호 | 황정현
- 30 • Y에 바치는 연가 _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수원Y와의 인연 | 김준혁
- 33 • 신간소개
- 34 • 행복한 불편 _ 북한 안주의 어린이를 내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 평화운동팀
- 35 • 2011년 YWCA 북한어린이돕기 모금운동 후원자 감사인사
- 36 • Y-돋보기 _ 동면 | 장차현실
- 37 • 세계 속의 한국YWCA _ 모금은 사랑입니다 | 원영희
- 38 • 11월의 YWCA
- 40 • 12월의 YWCA
- 42 • 연합회 소식
- 44 • 회원YWCA 소식
- 52 • 2011 월간(한국YWCA) 주요목차 색인
- 54 • 구독자·출판사 감사인사

2011. 11+12

제49권 제7호 통권486호 2011년 12월 08일 발행(등록번호 라-746호) 발행 한국YWCA연합회
편집인 유성희 편집장 차경애 편집위원 김진형·백수경·윤혜원·이경순·이은영 편집 박은실·정서연
발행처 서울 중구 명동1가 1-3 한국YWCA연합회
전화 02-774-0230 팩스 02-774-9724 <http://www.ywca.or.kr> 트위터 @YWCAKOREA
편집디자인 디자인21(02-3443-4877)
구독신청안내 구독찬조금 1만 원(1년분)을 내시면 택으로 보내드립니다.
농협 386-17-000052(한국YWCA연합회) 송금 후에는 연합회 사무실로 입금 사실을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Y W C A

현장 속으로



01 부산_Y 부산YWCA 창립65주년 기념예배



03 서울_Y 큰장날



04 논산_Y 10주년 기념행사 여행스케치



02 통영_Y 예비사회적기업 민들레누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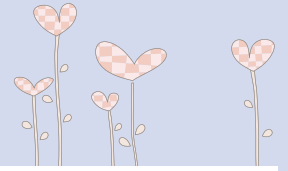
05 남원_Y 성문화체험전



06 순천_Y 북한어린이돕기기금마련



07 안양_Y 이웃초청 나눔의 날



08 연합회_YWCA&YMCA 공동기도회



09 청주Y_제13회 여성영화제



10 안산Y_다문화가족캠프



12 성남Y_아침밥먹기캠페인



13 동해Y_공공기관 일회용품줄이기협약식



11 진주Y_난쟁지역아동센터 한화 예술더하기 페스티벌



14 대구Y 새터민과 함께하는 어깨동무

행복의 차원

● 글 | 전병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세계일주여행가)



과연 누가 더 행복할까?

2007년, 신문방송학을 공부하는 학생이었던 나는, 이제 막 군대에서 제대한 뒤, 한 DMB 방송국에서 풋내기 방송작가 활동을 시작하며 들떠있던 시절이었다. 그 시기에 문제의 궁금증이 생겨 버렸다.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증권투자상담사. 그리고 몽골 초원에서 양을 치는 목동. 이 둘을 비교하면 과연 누가 더 행복할까?” 이들의 행복을 비교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 궁금증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내 눈에는 예전과 다른 모습의 세상이 찬찬히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 후, 네덜란드 에라스무스 대학 Ruut Veenhoven 교수의 World database of happiness 데이터를 보고 다큐멘터리 기획서 작업에 들어갔다. 내가 하고자 했던 작업은 객관적 수치를 통해 행복하다고 발표되는 나라들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그 나라 사람들을 만나 이유를 밝히고 다큐멘터리로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뛰어난 사회복지의 나라부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정치적 파탄의 나라 등 상황은 각각 다르지만 모두 객관적으로 월등하게 행복한 나라들이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는 삶을 갖게 하는 것일까. 그로부터 2년이 채 되지 않아 나는 20kg이 넘는 배낭과 비디오카메라를 들고 그 나라들 속에 들어가 친구와 교수들을 만나 그 행복을 탐닉하고 있었다.

나와 함께 이 사회 속 ‘청춘의 영역’을 담당하는 분들과 내 여행의 어떤 부분을 공유하면 좋을까. 여행 루트라던가 준비하면서의 과정? 아이슬란드의 빙하와 아마존의 밀림처럼 평생 한번 볼까 말까한 멋진 외국의 모습들? 그것도 아니면 돈이 없어 당근 반 개 끼니를 때우던 고생담? 고민 끝에, 내가 만났던 행복한 사람들을 소개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가장 순수했던 내 여행의 목적이었고, 내 여행의 결과도 사실 이들이 지니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 특히 우리나라의 젊은이들과 나누고 싶은 3명 정도의 친구들을 소개해 볼까 한다.

**중앙 아메리카의 보석 코스타리카에서 만난 레이첼(29):
'철이 든다는 것'**

캐나다인 레이첼(29)을 만난 건 코스타리카 동부에 위치한 퀘포스 해안에서였다. 갈색머리와 적당히 그을린 피부가 제법 매혹적인 그녀는 내가 머물던 호스텔 1층에서 처음 만났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이벤트 플래너로서 바쁜 젊은 시기를 보내던 레이첼은 퀘포스에서 1주일간의 휴가를 보내며 이 해변가와 사랑에 빠졌다. 그녀는 캐나다로 돌아가 곧장 직장을 그만두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작별인사를 한 후, 무작정 이 곳으로 날아와 1년 반을 넘게 지내고 있다. 레이첼이 회상하는 토론토의 모습은 내가 살던 서울과 비슷했다. 모두가 일하기에 바쁘고, 노력하면 최소한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은 벌 수 있지만, 대부분 그보다 더 안정적이고 나은 삶을 위해 과감히 고단한 하루하루를 보낸다는 것이다. 레이첼이 말하는 경쟁적 사회와 이웃 간의 소멸 등이 요즘 한국에서 이야기 되는 그것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그럼 여길 떠나면 어디로 갈 생각인데?” 내가 물었다. “그저 난 지금 내가 좋을 뿐이야. 난 정말 행복해.” 레이첼이 만약 한국인이었다면, 분명 아직 철이 덜 들었다는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철이 드는 것이 참으로도 중요한 한국이다. 그래서 철이 제대로 든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현재를 당연하게 포기하고, 불확실한 미래의 행복과 부를 위해 하루를 투자한다. 과연 누가 더 철이 없는 걸까. 현재의 잡을 수 있는 행복을 선택한 레이첼인가, 아니면 미래의 불확실한 행복을 선택한 한국인인가. 간단해 보이면서도 재수시절 노랗진 단과학원에서

머리 아파하던 고차방정식의 연산 과정만큼이나 답이 안 나오는 이야기다.

**남태평양의 작은 섬바누아투에서 만난 샘(32):
'실업률 90%의 나라'**

바누아투 수도 포트빌라에 위치한 남태평양 대학 바누아투 캠퍼스. 이 곳 학생관리처에서 일하는 나오미의 말에 의하면 매년 바누아투의 취업시장에는 대졸자, 고졸자, 그리고 이직희망자를 포함하여 약 5,500여명의 구직자가 나오지만 그 중 약 500여명만이 취업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직장이 그 만큼 부족한 것이다. 영국과 프랑스의 공동통치를 받아오다가 1980년 독립한 바누아투의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국어인 비슬라마어를 포함해 영어와 프랑스어에 능통하다. 그리고 이곳의 학생들은 다른 대부분의 나라 학생들이 그러하듯이 한국 학생들과 다르게 자신의 전공 공부에 대부분의 학습 시간을 투자한다. 이 학생들은 대학교를 졸업할 때, 대부분이 자신의 전공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졸업한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실업률은 90%다. 내 친구 샘도 대학교에서 회계학을 전공한 미취업자였다. 하지만, 그의 하루 일과는 오전에 작살로 바다에서 낚시를 한 뒤, 가족과 아침식사. 점심에는 해변가에서 낮잠, 저녁에는 집 앞에 심어둔 Yam(고구마 같은 농작물)과 바나나 등으로 저녁 식사를 하면 일과가 마무리 된다. 가끔 친구들과 카바라는 술을 마시기도 한다. 돈도 없고, 직업도 없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없다. 하지만 샘은 누구보다 행복하다고 큰 소리로 말했다.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식량과 비를 피할 수 있는 집, 그리고 옹기종기 모여 사는 아내와 두 아이들도 있으니 자신이 불행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과연 샘은 지나친 낙천주의자일까. 아니면 우리가 너무 많은 걸 원하며 살고 있는 것일까. 분명 단언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는 삶을 버겁고 힘든 것으로 생각하지만, 샘은 그의 삶

을 행복하고 즐겁게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은둔의 나라 아이슬란드, 오스카(27):

‘막나가는 행복, 지식과 나라사랑’

“자살률 유럽 1위, 이혼률 유럽 1위, 그리고 행복지수 세계 1위! 아이슬란드를 위하여!”라고 말하며 오스카는 입으로 담배를 가져가서 한 모금 빨았다. “아이슬란드가 나를 행복하게 하고, 거기 사는 내가 바로 행복이다.” 라고 말해준 오스카는 토종 아이슬란드인데 수 년째 시내의 한 아파트에서 대학 동기들과 함께 살고 있다. 사실 그에 대한 첫 인상은 망나니 아이슬란드, 그리고 걱정되는 아이슬란드의 미래였다. 1940년에 덴마크로부터 독립하여 세계 최고의 금융강국으로 성장한 나라. 그리고 지난 세계 경제위기에 가장 먼저 부도가 난 나라가 아이슬란드다. 그래서 어려움을 모르고 자랐을 젊은 아이슬란드인들이 경제 위기 속에서 많이 방황하고 있을 거란 선입견이 있었다. 하지만 오스카와 그의 친구들은 그런 내 생각을 금세 뒤집어 놓았다. 대학에서 미술 공부를 한 오스카의 직업은 계잡이 어부였다. 매일 밤 흥청망청하던 그는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 일터에 나갔다. 그런 그가 나를 놀라게 하고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만든 것은 나라에 대한 사랑과 지식이었다. 오스카와 그의 친구들은 아이슬란드가 처한 위기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아이슬란드의 역사적 배경을 연도까지 나열해가며 친구들과 진지하게 토의하고, 곧 있을 선거를 위해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에 나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한민족, 애국정신을 말하지만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은 나라의 역사와 그 배경적 지식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 얇은 지식만으로 지금의 현실을 비난만 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비교하면, 이 젊은 아이슬란드어들은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자신들의 방향으로 가져올 준

비가 되어있는 친구들이었다.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과연 그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애정과 지식도 없이 말만 앞서는 변화의 물결이 오히려 더욱 위험한 사회를 초래하진 않을 까라는 생각을 하니,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고민하는 망나니 아이슬란드 오스카가 더욱 행복하게 보였다.

행복은 언제나 내 주변에 있다

이제 나는 사람들 앞에서 현재의 행복을 이야기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이상적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나는 누구보다 현실적으로 삶을 대하는 사람이기에 행복을 이야기 할 뿐이다. 행복은 현실이다. 나의 이야기를 접하는 모든 이들이 묻는 마지막 질문은 한 가지다. “그래서 대체 행복이 뭐야?” 결론부터 말하자면, 행복을 만들어내는 요소들은 언제나 주변에 있다는 사실이다. 어디까지나 내가 얻은 결론이기 때문에 누군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굳이 할 말이 없다. 정말이지 가장 쉬운 행복은 가족과 친구와 우리가 하는 일터에 있다. 끝으로, 뭐, 뻔한 얘기가 되겠지만 나는 여행을 통해서 ‘나’를 찾았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좀 더 의미 있고 진실한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 또한 여행을 통해 발견했다. 나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의 청년들에게 단순히 돈을 쓰고 돌아다니는 관광보다는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둔 여행을 해보길 권해본다. 당신이 80세가 되었을 때 프랑스 에펠탑은 아마 볼 수 있겠지만, 베네수엘라의 살사 학원에 등록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세상의 변화는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

● 글 | 송대규 (대학생 국제활동가)



국제 개발현장에서 호흡하며 배우고 싶어

컴퓨터 교사이신 아버지 덕분에 초등학교 시절부터 컴퓨터를 접할 수 있었다. 흥미를 가지고 컴퓨터와 늘 씨름 하다 보니 학창시절 각종 미디어제작 경진대회에서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었다. 수상의 영예로 한참 들떠있던 시절 부모님께서서는 ‘달란트를 좀더 가치 있는 데 써보자’며 재능나눔활동을 권면하셨고 YWCA익산지부와 교회 홈페이지를 제작하며 대회에 나갈 때 느끼지 못했던 보람의 기쁨을 알게 되었다. 봉사의 범주 안에는 자신이 가진 ‘기술이나 전공지식’을 나누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대학에 진학 후에도 재능나눔 활동을 지속하게 되었다. KT&G복지재단 캄보디아 대학생 봉사 활동 기록 영상제작을 시작으로 LG그룹 해외 취재 탐방단(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국제해비타트(필리핀), 워크캠프(베트남) 등에서 단기 봉사 및 취재활동을 경험하며 자연스럽게 아시아 지역의 문화와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후 국제 개발 현장에서 좀 더 오래 호흡하며 배우고 싶다는 생각으로 굿네이버스 장기 봉사

단원 자격으로 인도에 향하게 됐다.

단원 자격으로 인도에 향하게 됐다.

떠나기 전에는 인도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 있었다. 낙타 위에 올라타 뜨거운 모래사막을 헤매며 오아시스를 찾아 떠나는 방랑자의 모습을 떠올리곤 했었다. 그러나 지부관리 사업장은 IT단지인 유명한 벵갈로르라는 도시에 위치하고 있어서 상상과는 달리 한참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현대문화와 동떨어진 생활을 하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해도 생활이 윤택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씻기 위해 화장실 수도꼭지를 열면 죽은 벌레들과 썩은 풀이 섞여나왔고 밤에는 모기장 작은 구멍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모기들과 씨름하며 잠을 설치기도 했다. 그런데 나를 힘들게 했던 건 이런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차이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면 장기적 시간계획을 정하고 여러가지 일을 복합적으로 진행하는게 당연시 됐지만 인도직원들은 한 가지일이 완벽하게 끝날 때까지 다른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 가끔 답답함을 표현하자 현지인 관리자께서 말씀하셨다. “인도는 한국 보다 수십배 이상 큰 나라로 12억의 인구, 2천개가 넘는 현지 언어, 카스트제도의 상존, 종교적 갈등

등 복합적으로 고려해야할 일들이 많다.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결정해야한다. 선부른 결정이 모든 일을 그르칠 수 있다.”며 현지 문화를 이해하라고 말씀하셨다. 인도에서 생활해나가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난 그냥 사람들을 돕는게 좋아요”

현지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해갈 무렵 지부장님으로부터 업무용 오토바이의 사용을 허락 받아 필기시험을 보고 연습면허를 받았다. 기쁜 마음에 밤마다 여기저기 목적 없이 돌아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도로 한 가운데에서 시동이 꺼져버렸다. 기름이 부족하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막막함으로 오토바이를 힘겹게 끌고 집을 향해 가다가 한 상점에 불이 켜져 있어서 찾아갔다. “저기요, 기름 좀 살 수 있을까요?”, “여기 없어요. 2Km 떨어진 곳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어쩔 줄 몰라 상점 밖에서 멍하니 서있는데 한 청년이 허름한 오토바이를 타고 왔다. “내 뒤에 타세요. 주유소에 데려다 줄게요.” 주유소에 도착했을 때, 이미 불을 끈 채 퇴근할 채비를 하고 있었다. 청년이 주유소 직원에게 기름을 팔라고 말했으나 이미 업무 종료했기 때문에 기름을 팔 수 없다고 한다. 잠깐을 고민하던 청년은 휴대폰 불빛으로 자신의 오토바이를 비춰달라고 한다. ‘뭘 하려는 거지?’ 나사를 풀고 엔진의 뚜껑을 열어 연결된 호스를 뽑더니 플라스틱병 속에 집어 넣었다. 천천히 기름이 채워졌다. 고마운 마음에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는데 청년과 그의 친구들이 일제히 나를 말렸다. “난 그냥 사람을 돕는 게 좋아요.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조심히 들어가요.”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모두와 악수를 하고 헤어졌다. 이날 이후 ‘인도인에게 당한 게 많아 끌도 보기도 싫다.’는 사람들과 마주하면 언제나 이 일화를 전하곤

현지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해갈 무렵 지부장님으로부터 업무용 오토바이의 사용을 허락 받아 필기시험을 보고 연

습면허를 받았다. 기쁜 마음에 밤마다 여기저기 목적 없이 돌아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도로 한 가운데에서 시동이 꺼져버렸다. 기름이 부족하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막막함으로 오토바이를 힘겹게 끌고 집을 향해 가다가 한 상점에 불이 켜져 있어서 찾아갔다. “저기요, 기름 좀 살 수 있을까요?”, “여기 없어요. 2Km 떨어진 곳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어쩔 줄 몰라 상점 밖에서 멍하니 서있는데 한 청년이 허름한 오토바이를 타고 왔다. “내 뒤에 타세요. 주유소에 데려다 줄게요.” 주유소에 도착했을 때, 이미 불을 끈 채 퇴근할 채비를 하고 있었다. 청년이 주유소 직원에게 기름을 팔라고 말했으나 이미 업무 종료했기 때문에 기름을 팔 수 없다고 한다. 잠깐을 고민하던 청년은 휴대폰 불빛으로 자신의 오토바이를 비춰달라고 한다. ‘뭘 하려는 거지?’ 나사를 풀고 엔진의 뚜껑을 열어 연결된 호스를 뽑더니 플라스틱병 속에 집어 넣었다. 천천히 기름이 채워졌다. 고마운 마음에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는데 청년과 그의 친구들이 일제히 나를 말렸다. “난 그냥 사람을 돕는 게 좋아요.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조심히 들어가요.”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모두와 악수를 하고 헤어졌다. 이날 이후 ‘인도인에게 당한 게 많아 끌도 보기도 싫다.’는 사람들과 마주하면 언제나 이 일화를 전하곤

한다. 사실 여행객들이 주로 가는 곳은 유명한 관광지로 그곳에서 만나는 인도인이라고는 틱샤, 판매 등 영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부류가 대부분으로 사기와 과장을 일삼는게 사실이다.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던가. 일부에 불과한 사람들을 접하고 인도 전부에 대해 판단하는 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신규 후원 아동들의 자료 수집을 위해 종종 6시간 거리의 시골 사업장에 찾아가곤 했다. 이미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에서 다양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보았지만 이곳의 아이들은 뭘지 모를 카리스마가 있다. 자신들의 몸보다 두 척 이상 큰 나에게 손 내밀어 악수를 청하며 자신에 대해 당당히 소개하는 것을 보니 어른스럽고 기특해 보였다. 아이들의 밝게 웃는 미소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모금단체의 직간접 후원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을 받고 성장하는 아동들을 보며 마음이 뿌듯해지곤 했다. 수인성 질병으로 고통 받는 마을이 있었는데 후원자의 도움으로 ‘우물 덮개’를 덮어줬을 뿐인데 사람들이 치유되었고 얼마동안 재봉틀, 컴퓨터 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시대로 취직해 가정이 변화 되는 것을 목격했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투자와 관심으로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배우게 되었다.

각자가 사회적 책임을 자각할 때

1년 장기 봉사자에게는 총 2주간의 중간휴가가 주어진다. ‘어떻게 하면 휴가를 잘 활용할 수 있을까?’고민 하던 중 국제워크캠프기구에서 북인도 지역에서 한국 대학생 30명과 다국적 청년들이 참가하는 평화대장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영상제작자로 참여하게 되었다. 불가촉 천민 출신 인도인 50명과 함께 파키스탄 경계에 있는 라자스탄 지역을 행진하며 주민들에게 평화에 대해 외쳤다. 기록

교, 불교, 천주교, 힌두교, 시크교 등 다양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평화를 위한 행진을 축복해줬고 주지사, 국회의원, 지역 유지, 티벳난민들의 초대를 받기도 했다. 작은 목소리에 불과 했지만 세계에서 모여든 젊은이들이 평화라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로 운집하여 행진하는 모습에 많은 현지인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줬음에 틀림없다. 이는 중간중간 자연스레 합류하는 아이들과 주민들 그리고 지역 신문과 방송보도로 나타났다.


BBC방송 ‘World Changer 위자야 박사 편’ 을 보았다. 평범한 외과의사였던 그가 잘 넘어지지 않고 넘어져도 기쁨이 쏟아 지지 않는 단순하지만 특별한 램프를 개발, 스리랑카 화재사고를 줄이는 데 공여하기까지의 이야기가 소개되었고 그 뒷이야기 그리고 어른으로부터 지혜를 구하기 위해 스리랑카로 날아갔다. 박사님을 따라 사무실과 램프공장, 현지 지역들을 돌아다니며 많은 대화를 나눴고 특히 ‘세상의 변화는 작은 것으로부터 온다’는 말씀을 가슴속에 담았다. 박사님께서서는 스리랑카 모든 지역에 전기가 보급되어 자기 발명품이 사용할 필요 없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Humanitarian Affairs라는 영국의 국제단체에서 MDGs달성과 빈곤을 주제로 대학생 리더십 심포지움(태국)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고급호텔에서 값비싼 음식을 먹으며 빈곤 해결에 대한 토의를 진행한다는 말을 듣고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다. 단체에서 어떻게 대학생들에게 동기 부여를 하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스텝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전 세계에서 모여든 300여명의 대학생들 개개인이 가진 참가 목적은 달랐겠지만 공통적인 관심사는 국제 교류활동에 있었다. 남아공, 미국, 아르헨티나, 필리핀, 호주 등 70개국에서 모여든 청년들이 함께 교류한다는게 큰 매력이었던 것 같다. 국제개발에 대해서는 거의 이해가 없었던 청년들이 전문

가의 강의와 토의과정을 통해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사회적 문제에 대해 공감해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 때 느낀 생각은 ‘모두가 필드를 누비는 국제활동가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세상속에서 각자 다른 역할 속에서 살아갈 텐데, 리더로서 가져야할 사회적 책임을 자각하였다는 것 만으로도 이 회의는 성공적이라고 생각했다.

지난 9월 ‘여유 있을 때 돕겠다는 건 거짓말’이라며 가진 것을 나누자고 하셨던 이 시대의 영웅 故 김우수님의 사고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과 반성으로 어린이를 위한 기부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을 보며 스리랑카에서 만난 고바꿈부라 박사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다. ‘부자가 낸 많은 현금보다 가난한 과부의 전재산인 두 렘돈의 가치가 더 높다’고 하셨던 예수의 말씀과 가장 가까운 삶을 실천하다가 생을 마감한 사랑의 배달부 김우수님의 작지만 큰 사랑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다.

한 마리 나비의 날개짓처럼

나는 졸업을 앞둔 대학생이다. 사회속에서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지 내 미래를 짐작할 수 없다. 그러나 그동안 다양한 국제활동에 참여하며 느낀 것은 세상을 바꾸겠다는 야심찬 목표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작은 집단 속에서 남들이 쉽게 놓치곤 하는 작은 일부터 애정과 관심을 갖고 노력 한다면 분명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한 나비의 날개짓이 태풍을 만드는 것처럼. 

나 그동안 다양한 국제활동에 참여하며 느낀 것은 세상을 바꾸겠다는 야심찬 목표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작은 집단 속에서 남들이 쉽게 놓치곤 하는 작은 일부터 애정과 관심을 갖고 노력 한다면 분명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한 나비의 날개짓이 태풍을 만드는 것처럼. 

내가 나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 글 | 이은선 (세종대교수, 종교·정치·교육)



본래적 인간 고유 존엄성

우리 시대에 다시 정의가 문제가 되었다.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지구 어머니의 것이 그 자식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찍부터 지구 동서의 사람들은 정의에 대해서 약간씩 다르게 이야기해왔지만 한결같이 말한 것은 지구에 살고 있는 모두는 각자 자신의 몫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본래적으로 주어질 다른 사람의 몫을 빼앗은 것은 불의이고,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다. 플라톤은 일찍이 정의를 ‘일인일사(一人一事)’로 말하면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각자 자신의 일을 가지고 있는 사회를 이상사회라고 했고, 맹자는 ‘경장(驚

長)’을 말하면서 낡고 오래된 것, 나이 들어서 힘이 없는 존재이지만 바로 그 존재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일이야말로 정의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의 ‘능력평등주의’나 ‘공리주의’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사람들이 후천적으로 이룬 것(능력)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며 자리매김을 하는 것은 언뜻 보기에는 정당한 듯이 보이지만 자칫하면 그 일은 모두가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 고유 존엄성을 무시하기 쉽다. 그래서 요즘처럼 스펙 쌓기가 성행하고 약자나 노인, 오래된 것, 아니면 새로 도착한 자는 설 자리를 잃거나 찾지 못하고 각종 공리주의에 휘둘리며 비참 속에 빠지게 된다. 기성세대가 이미 이루어놓은 세상에 ‘늦게’(belated) 또

는 '새로'(new) 온 자로서 청년들의 고통이 크다. 견고한 성처럼 틈새가 보이지 않는 곳에 와서 어떻게든 자신의 자리를 찾고 두 발로 스스로 서고자 오랜 기간 인내하며 노력하지만 정말 쉽지 않다. 한국 사회에서의 고통에 찬 긴 교육기간, 군대라는 통과 의례, 여성의 몸과 관련해서 쏟아지는 모든 비인간적 요구들과 잔인성을 견디어내야 하는 조건 등, 청년들의 길에 난관이 가득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세계는 바로 청년들의 그러한 고통에 찬 몸부림을 통해서 새로워져 왔으며, 만약 그렇게 새로 온 자들의 몸부림이 없다면 세계는 벌써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그 탄생과 더불어 이 세계를 새롭게 할 힘과 명(命)을 주신다는 것이고, 그래서 각자는 이 세계에서 자신만의 새로운 일과 명을 찾아야 하고 그것이 청년의 권리와 의무라는 것이다. 이 세상의 소망과 희망은 바로 그렇게 새롭게 오는 자, 새로 탄생하는 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새롭게 온 자로서 예수는 당시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 "위선자들"이라고 외쳤다(마태 23장).

당시의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오늘 교회의 성직자나 신학자에 견주어질 수 있는데, 이들은 기성세대로서 과거에 자신들이 이룬 것에 집착하고, 거기에 기대어서 온갖 권력과 부, 명예와 더불어 영생도 자신들의 소유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다. 청년 예수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일어서서 그러한 모든 이루어진 것에 대한 집착과 고정화는 하나님을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만드는 일이며, 그의 성전을 시장이해의 각축장으로, 영생과 부활을 소유와 물질적 실체로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경고하셨다. 그래서 그는 그러한 자들로 점령당해있는 당시의 예루살렘을 보고 통탄하셨고, 그 임박한 해체를 보고 깊이 애통해 하셨다.

자신만의 대양을 탐험하라

19세기 중반 미대륙에서 부당한 전쟁과 함께 인디언과 흑인을 차별하는 미국 정부에 대해서 <시민불복종>을 외쳤고, 당시 점점 더 드세지는 서구 제국주의적 개발주의에 저항해서 월든 호숫가 숲에서 극진한 자연주의적 삶의 모형을 보여준 <월든>의 작가 헨리 소로우는 당시의 젊은이들에게 누구나 "자신만의 대양을 탐험하라"고 조언한다. "가난을 피하기 위해서 너무 근심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는 그에 따르면 각자는 그렇게 자신만의 탐구할 대양을 가지고 있을 때 외롭지 않고, 쉽게 좌절하지 않으며, 세상이 주는 가벼운 쾌락이나 만족 대신에 인생의 깊은 즐거움과 감탄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자신만의 대양'이란 꼭 거창할 필요가 없다.

자연주의자 소로우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숲을 산책하는 일이 되어서 그는 날마다 많은 시간을 숲에서 보냈다. 소로우는 자신의 대양인 자연과 깊이 사귀는 삶을 살았다. 오늘 청년들도 모두 나만의 대양을 가질 수 있고, 가져야 한다. 그것이 어떤 젊은이에는 '헌책방'이 되어서 헌 책을 모아서 이웃과 서로 나누어보고, 거기서 마을의 사랑방을 만들고, 이웃과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서로의 삶의 고충을 나누는 사랑의 장소로 화하게 했다. 어떤 청년에게는 그것이 독도를 탐험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거기서 한일 관계라는 대양을 만날 수도 있다. 또 어떤 이에게는 오늘 우리 고통의 큰 원인이 되는 '학교'와 '교육'의 일을 자신만의 대양으로 삼아 정말 어떻게 하면 그것이 사람을 살리고 기르는 일이 될 수 있을까를 탐험하여서 지금까지 교육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파를 모두 그 성전에서 몰아내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충실하고 깊이 있게 자신의 대양을 탐구해 나갈 때 우리는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는 어떤 존

재의 피조물이라는 것”과, (우리가) “인류의 일부분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의 모험과 탐험이 가치 있는 일이고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소로우는 자신 삶의 깊은 체험으로부터 이야기해주고 있다. 그는 “구차하고, 생각이 짧고, 경솔한 방법으로 빵을 얻는 일에 만족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자신의 가슴과 삶으로 모든 힘을 다해서 빵을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빵을 얻을 것이며, 그렇게 얻은 빵은 매우 맛있을 것입니다.”라고 확신 있게 말한다.

불가능한 것을 찾아 탐험하다

오늘 물질과 자본주의와 도시와 성공지상주의의 시대에 여기서 소로우가 제안한 삶의 원리를 다시 실험하는 일은 어쩌면 거의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그것은 “어리석은”(foolish) 일처럼 보이고, “너무 배고픈”(hungry) 삶처럼 보인다. 하지만 오늘 ‘세속화’(a secular age)를 넘어서 다시 ‘탈세속화’(postsecular)를 말하면서 우리 시대의 새로운 신앙적 영성을 찾는 존 D. 카푸토에 따르면 오늘 우리 시대에 신앙과 종교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그 “불가능한 것, 즉 신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에 열정을 쏟는 일, 그것은 오늘의 자기강조와 자기과시의 시대에 ‘자신을 버리고 남을 따르는 일’(捨己從人)일 수도 있고, 자신의 성공과 잘됨에만 관심하는 시대에 ‘다른 사람과 함께 선을 행하는 일’(善與人同)일 수 있으며, 이렇게 인간성이 무너지고 종교가 사람 잡는 일이 되어버린 때에 다시 그 ‘인간성을 추구하여 영원을 이루는 일’(求仁成聖)이 될 수도 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에 열정을 쏟는 일, 그것은 오늘의 자기강조와 자기과시의 시대에 ‘자신을 버리고 남을 따르는 일’(捨己從人)일 수도 있고, 자신의 성공과 잘됨에만 관심하는 시대에 ‘다른 사람과 함께 선을 행하는 일’(善與人同)일 수 있으며, 이렇게 인간성이 무너지고 종교가 사람 잡는 일이 되어버린 때에 다시 그 ‘인간성을 추구하여 영원을 이루는 일’(求仁成聖)이 될 수도 있다.

카푸토는 그리하여 서양 중세 기독교 신앙 시대의

문을 연 어거스틴의 진실한 고백과 추구에 접목하여서 ‘내가 나의 신을 사랑할 때,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라는 물음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진지하게 물어야 한다고 촉구한다. ‘내가 나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나는 진정으로 무엇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 질문이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 시대의 불가능한 것을 찾아서 그것을 탐험하고 밝혀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힘을 보태어야 한다.

청년들을 통한 새로움을 기다리다

앞의 소로우는 “단순함의 가치”를 믿으면서 “문제들을 단순화시키고, 불필요한 것들로부터 꼭 필요한 것과 진정한 것들을 구분해내는” 일의 중요성을 말한다. 이 시대가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더욱 더 청년들을 통한 새로움을 기다린다. 로마서에는 온 세계의 피조물이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청년 예수가 그렇게 이 세상을 새롭게 했듯이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변해야 하는 것, 꼭 필요한 것과 진정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어서 그것을 자신만의 대양으로 삼아서 그 불가능한 것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열정과 용기의 청년들이 되기를 소원한다. 그 탐험의 길에서 ‘내가 나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 것인가?’의 질문이 청년들의 끊임없는 질문이 되기를 기원한다. 

앞의 소로우는 “단순함의 가치”를 믿으면서 “문제들을 단순화시키고, 불필요한 것들로부터 꼭 필요한 것과 진정한 것들을 구분해내는” 일의 중요성을 말한다. 이 시대가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더욱 더 청년들을 통한 새로움을 기다린다. 로마서에는 온 세계의 피조물이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청년 예수가 그렇게 이 세상을 새롭게 했듯이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변해야 하는 것, 꼭 필요한 것과 진정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어서 그것을 자신만의 대양으로 삼아서 그 불가능한 것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열정과 용기의 청년들이 되기를 소원한다. 그 탐험의 길에서 ‘내가 나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 것인가?’의 질문이 청년들의 끊임없는 질문이 되기를 기원한다. 

세계YWCA&YMCA 국제친선 및 기도주간

청년, 권리와 정의를 위해 외치다

세계YWCA&YMCA 국제친선 및 기도주간은 1904년에 시작된 이래로, 매년 11월에 전 세계 YWCA와 YMCA가 함께 기도하는 전통이 되었다. 이 기도주간에 YWCA와 YMCA는 공동이슈와 주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를 드렸다. 2011년 세계YWCA&YMCA 기도주간 주제인 '청년, 권리와 정의를 위해 외치다'로, 기도주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역사를 통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사용해 오셨는지를 함께 묵상하게 된다.

세계YWCA/YMCA 회장 인사말

올해의 연합기도주간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 청년들을 존중하고, 청년들을 육성하는 책임의식을 갖고, 청년들을 예우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청년들은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변화시키자고 목소리를 냅니다.

청년들의 목소리가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환경과 마주하는 현실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청년들에게 주신 성격과 재능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청년들의 목소리는 모두 다르게 표현됩니다. 그렇지만 청년들의 목소리에는 공통의 목적이 있습니다. 부당한 사회에서 핍박받고 짓눌리는 이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외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나이가 많고 적음, 경험의 유무, 교육을 받은 정도에 관계없이 우리가 사랑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줄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올해의 연합기도주간을 위한 성경구절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입니다.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저는 수백만 명의 청년들이 YMCA와 YWCA에서 자신들의 권리와 정의를 위해 외치고 정의를 위해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책임의식을 갖고 청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북돋아주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며, 우리도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자신이 있는 곳에서 많은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고, 그 일에는 청년들은 물론 우리들도 참여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소명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곳에 세우고 우리 주위의 모든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묵상 중에 함께 논의하고 기도합니다. 정의를 위해 일하려는 우리의 임무를 완성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영감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드보라 토마스 오스틴 세계YWCA 회장
켄 콜로튼 세계YMCA 연맹 회장

11월 YWCA월례아침기도회

다시 산다면 (데살로니가전서 5:16-18)

● 장윤재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부 교수 / 교목)

미국의 한 사회학자가 만 95세 이상 된 고령자 50명을 대상으로 “만약 당신이 인생을 다시 한 번 살 수 있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란 설문조사를 했다. 세 가지의 공통적인 답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와 일치한다. 2천 년 전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세 가지가 무엇인지 이미 밝혀 놓았던 것이다.

첫째 “더 많은 모험”, 다시 한 번 인생을 산다면 좀 더 과감하게 도전하며 살겠다는 말이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다. 이것은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과감하게 대처하라는 뜻이다. 이런 의미로 “더 많은 모험”과 같은 뜻의 말이다. 후회 없는 멋진 인생을 살려면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기쁜 마음으로”, 과감히 도전하며 결심한 것을 실천에 옮기며 살아야 하겠다.

둘째로 “더 많은 성찰”, 즉 인생을 좀 더 깊이 성찰하며 살겠다는 말은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근원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며 살겠다는 뜻이다. 성서에서 기도라는 말의 원뜻은 ‘거울에 비추어 보다’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와 같은 “더 많은 성찰”은, 즉 매일을 살면서 한 번뿐인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며 살라는 뜻이다.


셋째로 “더 많은 감사”는 바울의 “범사에 감사하라”와 같다.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것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것들’이다. 햇빛, 공기,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의 사랑,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

님의 사랑이 그렇다.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영성이다.

12월 YWCA월례아침기도회

정의는 평화의 열매입니다 (야고보서 3:18)

● 이천진(공정교회 목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두 가지다. 하나님께는 영광을 드리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평화를 이루는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평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고, 평화를 이루는 것이 정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다. 평화운동으로 정의를 이룬 90년의 역사의 한국YWCA, 2011년에 정의의 운동을 축복으로 주신 하나님이 왜 2012년에는 평화운동을 축복으로 주시는 것일까? 평화운동으로 정의의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 생명을 돌보는 돌봄의 영성으로 생명을 위해 나누는 나눔의 영성으로 정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열매입니다’(야고보서 3장 18절)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평화의 씨앗을 사회 곳곳에 심을 때 정의의 열매를 한 가득 거둘 수 있다. 평화운동이 아니고서는 정의를 이룰 수가 없다. 9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YWCA가 평화를 통하여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한다. 

2011년 YWCA월례아침기도회를 되새기며

YWCA 여성회복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YWCA월례아침기도회가 12월 월례아침기도회로 2011년의 마지막 예배를 드렸다. 매월 1일 오전 7시 30분에 연합회와 전국 회원YWCA의 실무자와 자원지도자, 회원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 새로운 달의 시작을 위로부터 오는 은혜로 시작하였다. 2011년 YWCA 정의운동을 펼쳐나가며 월례아침기도회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새로운 시각과 힘을 얻을 수 있었다. 2012년 YWCA 평화의 해를 맞이하면서 YWCA의 깊어져가는 영성을 통하여 정의와 평화의 열매를 거두기를 소망한다.

2월 월례아침기도회(2011.2.1)

'하나님의 정의' (이천진 목사) 마태복음26:36-42

(중략)...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후략)

3월 월례아침기도회(2011.3.2)

'하나님의 형상' (이천진 목사) 창세기1:27~28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 스리라 하시니라

4월 월례아침기도회(2011.4.1)

'정의는 책임이며 사명입니다' (강교자 연합회 전 회장) 미가6:8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5월 월례아침기도회(2011.5.2)

'영성으로 펼쳐는 하나님의 정의운동' (강교자 연합회 전 회장)

마태복음5:14-16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6월 월례아침기도회(2011.6.1)

'생명정의' (장윤재 목사) 시편103:6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 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7월 월례아침기도회(2011.7.1)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장윤재 목사) 예레미야31:13

그 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9월 월례아침기도회(2011.9.1)

'그 길은 광야라' (장윤재 목사) 사도행전8:26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11월 월례아침기도회(2011.11.1)

'다시 산다면' (장윤재 목사) 데살로니가전서5:16-1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12월 월례아침기도회(2011.12.1)

'정의는 평화의 열매입니다' (이천진 목사) 야고보서3:18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제6차 YWCA정의포럼 YWCA정의약속을 이어 평화를 열다

지난 11월 24일 연합회 강당에서 제6차 정의포럼이 열렸다. 이번 정의포럼에서는 신학적, 시민운동론적으로 정의운동과 평화운동을 연계한 정의평화의 연결점과 지향점 그리고 실천방법을 논의하였다. 특히 이번 포럼은 2011년 마지막 정의포럼으로 1년간 논의해왔던 철학적, 신학적, 사회문화적 YWCA정의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며 내년도에 펼쳐질 평화운동을 이어가는 뜻 깊은 시간을 만들었다.

이훈삼 NCKK 정의평화국 국장의 '정의평화를 향한 소명'이라는 주제발제로 포럼의 문을 열었다. 이훈삼 국장은 생명을 가장 집약적으로, 처참하게 짓밟는 전쟁의 파괴력을 묘사하면서 그러한 전쟁의 목적은 인간의 탐욕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우리 사회 안에서 경제적 불평등의 구조에서 오는 불화가, 인간의 존재가치까지도 결정하는 잔인함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과 집단 관계에서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평화를 이루는 기초임을 역설하면서, 생명의 담지자인 여성의 지도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종수 문화를 생각하는 사람들 사무국장은 '정의평화 실천의 힘-교육과 문화'에 대한 발제를 하면서, 문화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소통을 이루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이루어간 경험을 나누었다. 또한 제로섬게임원리에 지배받는 사회구조 속에서, 남의 것을 더 빼앗아 나의 행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편을 들어줄 수 있는 것이 정의평화운동의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호 한신대 교수의 '아시아/세계와 함께하는 정의평화운동-연대 하

기'라는 주제의 발제에서는 한·중·일 청년들이 공통적으로 구조화된 빈곤으로 절망과 분노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꼽으며 지역을 넘어서서 세대 간 연대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더 이상 자국의 시민운동만으로 국가권력을 견제해내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시민운동이 동북아를 화두로 삼아 연대해나갈 때 지속적 운동의 동력과 상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진지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집짓기운동이자 정의평화운동임을 역설하였다. 워크숍에서는 최양남 광주YWCA 부회장과 박선 대구YWCA 사무총장이 2011년 YWCA정의포럼을 돌아보며 정의의 개념, 경제정의, 생명정의, 청년정의, 지역정의를 정리하고 YWCA정의운동 약속과 실천이 각 지역사회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한국YWCA는 2011년을 정의운동의 해로 선포하고 지난 3월부터 'YWCA 정의운동이란 무엇인가?'를 시작으로 '여성경제정의운동', '생명정의운동', '청년정의운동', '지역정의운동'을 다루고 'YWCA정의약속을 이어 평화를 열다'로 YWCA정의포럼 여정을 마무리하였다. Y가 걸어가야 할 각 영역에서 '정의'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통하여 지역과 삶 속에서 Y운동을 실천할 때의 동력을 마련해주었다. 2012년도 YWCA 평화의 해를 맞이하면서 올해 논의한 '정의'는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가기 위한 단단한 기반이 될 것이다. 

2011 YWCA 정의포럼을 돌아보며

〈제1차〉 YWCA정의포럼 문열기
- YWCA정의운동은 무엇인가?
(2011.3.31)

발제1 : YWCA역사와 목적문을 통해 본 YWCA정의운동의
신학적, 시민운동론적 배경과 의미
(최만자, 전 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

발제2 : 오늘 우리사회는 정의운동이 왜 필요한가?
- 철학적·사회문화적·경제적·시민운동론적
(김형완, 전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과장)

〈제2차〉 여성경제정의운동 - 돌봄노동의 사회화
(2011.4.28)

발제1 : 여성 노동권과 복지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발제2 : 복지의 관점에서 본 여성 돌봄 노동의 사회화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제3차〉 생명정의운동
- 생명신학과 생명운동현장을 돌아보며
(2011.5.26)

발제1 : 한국의 생명신학과 생명운동
(이정배, 감리교신학대학교 종교철학과 교수)

발제2 : 생명운동으로 생명사회(지역) 이룩기-현실과 운동과제
(주요섭, 모심과살림연구소 부소장)

〈제4차〉 청년정의운동
- 청년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위하여
(2011.6.30)

발제1 : 청년예수운동과 YWCA운동
(김기동, 신학자, 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

발제2 : 한국사회에서 필요한 청(소)년 정의운동
(최윤진, 중앙대 교수, 한국YWCA연합회 청년운동팀 위원)

발제3 : 20대가 말하는 청년정의운동
(박유라, YWBS 인터넷 방송국 1기 운영진 아나운서)

〈제5차〉 YWCA지역정의운동
(2011.8.25)

발제 : 예수 지역정의운동의 의미
(한문덕, 향린교회 부목사)

사례발제①
YWCA생명육아교실- 지역주민과 함께 키우는 품앗이 공동육아
(김정희, 이대 한국여성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사례발제②
주민참여예산과 YWCA여성운동
(박동순, 안양YWCA 사무총장)

사례발제③
지역 중심의 북한 여성과 어린이 인권 개선 운동
(안향선, 기아대책 사무총장)

〈제6차〉 YWCA정의를 이어 평화를 열다
(2011.11.24)

주제발제 : 정의평화를 향한 소명
(이훈삼, NCKK 정의평화국 국장)

발제1 : 정의평화 실천의 힘-교육과 문화
(이중수, 문화를 생각하는 사람들 사무국장,
생명평화결사 문화위원장)

발제2 : 아시아/세계와 함께하는 정의평화운동-연대하기
(이기호, 한신대 교수, ARI 대표)

발제3 : YWCA 정의포럼을 돌아보며(1) - 정의 개념, 지역정의를
중심으로 (최양님, 광주YWCA 부회장)

발제4 : YWCA 정의포럼을 돌아보며(2) - YWCA 정의운동
약속과 실천을 향하여 (박선, 대구YWCA 사무총장)

성인지정책 모니터링운동과 한국YWCA운동

● 글 | 박동순 (안양YWCA 사무총장)



YWCA 경기지역위원회에서는 한국YWCA연합회, 여성신문과 공동으로 “여/울/노/래-여성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에서 노래가 되어 세상의 모든 이를 행복하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성인지 정책과 성인지 예산, 참여 예산 제도 등 YWCA가 주력해야할 성평등정책 운동의 방향을 공부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10월 18일에는 ‘성평등 예산 편성을 위한 YWCA 성인지예산’ 워크숍이 열렸는데, 강선미 하랑성평등연구소 소장의 ‘성인지 정책과 여성운동 이해’란 주제의 기초발제와 박신연숙 좋은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사무국장의 ‘성인지 정책이란 무엇인가’, 조혜련 젠더N다양성센터 대표의 ‘지역 여성정책의 젠더 이슈 찾기’를 주제로 발제가 이어졌다. 또한 11월 15일에는 ‘성인지적 정책 제안을 위한 정책포럼’을 열고 ‘자치법규의 성인지적 분석의 필요성 및 경기도 사례’, ‘성인지적 정책제안을 위한 YWCA 역할’의 발제에 이어 ‘성인지적 정책 제안을 위한 전략수립’를 주제로 열린 그룹토론을 진행하였다.

1995년 북경에서 열린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성평등을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성주류화(性主流化 Gender Mainstreaming)”가 채택된 이후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가는 UN의 권고에 따라 성주류화를 위한 제도가 도입되었다. 성주류화란 ‘모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역의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디자인, 실행, 모니터와 평

가에서 여성과 남성의 관심과 경험을 통합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혜택을 받고 불평등이 조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며, 그 궁극적 목적은 ‘결과의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또한 1995년 12월 30일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여성정책 패러다임으로 성주류화를 도입하였고 2005 성별영향평가, 2010년 국가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성인지예산제도(性認知, gender sensitive budget)가 도입되어 2012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여성들에게 ‘예산’은 다가가기에는 전문적이고 어려운 영역이었다. 최근 지자체마다 정보공개를 강화하면서 지자체의 재정공시나 세입세출예산서를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하기는 하지만 일반시민들이 찾아보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곧 ‘예산’으로 실행되며, 이는 시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일 이기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할 영역임에는 분명하다.

상당기간동안 YWCA를 비롯한 많은 여성단체들에서 정책과 예산부분의 여성의 참여나 비중확대를 요구했으나, 여성문제를 전체 사회정책의 한 부분으로 보는 시각으로는 근원적인 성평등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채택된 것이 바로 ‘성주류화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성인지 예산 또한, 여성관련 정책이나 예산을 증대되어야한다는 관점이 아니라, 모든



성인지예산 워크숍




성인지예산 워크숍 조별 발표

부문의 정책과 예산에 여성의 관점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으로 '성주류화'의 가장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이다.

문제는 이 도구를 잘 활용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성별영향평가'와 '성평등정책을 수행할 추진체계'가 선행되어야한다. 안양YWCA에서는 98년부터 지역 내 여성단체들에 연대제안을 하여 '여성연대'를 결성하고 성평등정책 제안운동 및 성인지관점의 조례분석활동, 성별분리통계 및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제도의 내실 있는 시행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를 위해 올해 모의 성인지 예산서 작성 실습을 해보았는데, 함께한 회원들이 예산과 정책 속에 감추어져있던 불평등한 요소를 인식하면서 '숨겨진 비밀'을 풀어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YWCA 회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을 함께 인식하는 시간이 되었다.

예를 들어 여성과 전혀 상관없을 것 같던 사회체육관련 예산 속에도 성평등의 관점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확인해보면 그 속에 숨겨져있는 불평등의 요소를 발견하게 된다. 남녀 간에 선호하는 운동의 형태가 다른데, 성별분리통계자료를 확인하면 남성은 축구, 야구, 골프 등 팀으로 활동하는 집단경기를, 여성은 비교적 돈이 덜 들고 가사와 육아의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거나 다른 일과 병행할 수 있는 걷기나 조깅, 자전거 등을 주로 하는 차

이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성별통계에 근거해 남녀의 특성을 확인하고 예산을 살펴보면, 새로운 문제가 보인다. 체육행사관련 예산의 대부분이 주로 축구, 야구 등의 집단 경기 위주로 지원하고 있으며 결국 체육예산의 수혜대상자의 대부분은 남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성인지 예산은 고의적이지는 않더라도 미처 인식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정책의 허점을 찾아내는 것이다.

YWCA운동의 모든 영역에는 '성평등'의 관점이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 스스로 예민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YWCA 기독교여성이 생각하는 돌봄운동, 평화와 통일의 문제, 청소년의 문제가 다른 시민단체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차별화되어 나타나야한다. 바로 YWCA다운 운동은 사회를 바라보는 YWCA다운 분석, 관점, 비전 속에서 실현된다. 이를 위해 YWCA활동가들의 여성의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 알파걸로 불리는 소수의 혜택 받은 여성들이 남성과 경쟁하여 '유리천장'을 뚫는 것을 호들갑 떨며 부각하는 언론보도, 여성상위시대 거론하며 마치 남성들이 이제 여성의 기에 눌리고 있다는 식으로 바라보는 편견에 대해 똑바로 이야기 할 수 있어야한다. '여성'이 목소리를 낼 때 모두가 행복한 소리를 낸다는 것(여울노래)이 바로 YWCA운동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이 아닐까. 



2009년부터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후원하고 삼성생명이 제안하여 한국YWCA연합회와 한국YMCA전국연맹이 함께하는 2011 지역아동센터 2차년도 지원사업이 마무리되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면서 아동의 복지와 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확대되고 있지만, 지역아동센터는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시설 기준만을 겨우 만족시킬 뿐, 시설의 물리적·정서적 안전까지는 고려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를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느껴 사업을 시작하였다. 환경개선사업과 교사역량강화프로그램이 주된 사업이다. 1차년도 환경개선사업에서 314개 지역아동센터 224개의 화장실, 172개의 조리실 리모델링이 이루어졌으며 교사역량강화를 위하여 약 300여명의 교사가 국내외로 연수를 다녀왔다. 올해 2차년도 지원사업은 시설환경개선과 교사리더십강화, 그리고 평가사업에 주력하였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활공간을 위하여 화장실과 조리실을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다. 이 두 공간은 아동이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쾌적한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대부분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재정적 이유로 관리를 잘 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환경개선사업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사업내용이다. 올해는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6대 광역시 총 154개 지역아동센터 화장실 105개, 조리실 101개의 환경개선사업

이 이루어졌다. 또한, 교사역량강화사업은 지역아동센터의 교사와 센터장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교사의 전문적 역량 강화와 비전과 정체성 확립을 목적으로 하며, 교사들에게 심을 통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한다. YWCA 주관으로 올해 총 3차에 걸쳐 교사역량강화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총 118명의 교사들이 참가하였다. 지난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제주에서 3차 지역아동센터 교사연수 '희망을 찾아 한 걸음 여행'이 진행되었다. 센터장의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해 조은영 (주)조우 코크리에이션의 대표가 '코칭 기법을 통한 슈퍼비전과 팀 리더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워크숍을 진행하였고, 제주 달리도서관을 모델로 한 지역 내 소통의 사례를 공유하였다. 이번 연수를 통하여 센터장들은 지역아동센터의 문제점과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로 네트워킹의 장을 온라인으로 만들기로 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결의하였다.



또한 1차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평가연구를 실시하였다. 지난 11월 10일 연합회 강당에서 평가연구를 발표하는 평가토론회가 있었다. 평가 결과, 환경 개선사업에 교사와 아동 모두 매우 만족한 결과가 나왔으며 교사역량강화사업 평가에서도 교사들이 이 사업에 굉장히 만족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 평가를 통하여 이 지원사업이 교사와 아동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보인다는 논거를 제시 해주었다. 토론회에서는 윤희식 인하대 교수의 '탈가족화 경로의 계층간 차이', 김나연 박사의 '지역아동센터 교사의 돌봄의 의미에 관한 연구' 발제가 있었다. 이어 송문화 세움지역아동센터 시설장, 한도희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 진흥과 전문위원, 변숙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의 지정 토론회 있었다.



올해의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은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했던 154개 지역아동센터의 조리실과 화장실이 개선되고, 지역아동의 복지와 돌봄을 위해 헌신하는 지역아동센터 교사에게 학습과 쉼을 위한 국내 연수를 제공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지역아동센터의 발전적 역할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3차 지역아동센터 교사연수를 다녀와서

● 글 | 유은하 (화도마리지역아동센터 시설장)

둘째 날 온종일 진행되었던 슈퍼비전은 참으로 감동적이었다. 이처럼 알차고 에너지 넘치는 연수프로그램을 받아본 적이 없다. 연수에 참여하기 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비전을 세우는 숙제가 있었다. 몽클한 삶의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 본 적이 없었음을 알게 되었다며 말을 잊지 못하던 센터장의 눈물, 위기가 있을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열심히 살고 있다는 가슴 저린 센터장의 회고, 불치병을 앓고 있지만 그 병에 무너질 수 없어서 꿈을 세우고 몸을 다스리고 살고 있다며 울컥거리던 센터장 등등. 그들의 눈물과 떨림의 고백과 웅골찬 의지는 지금도 가슴속에 또렷이 남아있다. 우리가 언제 이와 같은 시간을 가졌었던가? 자신의 강점을 발휘하면서 타인들과 어떻게 소통을 이루어내야 하는지 고민하게 했던 시간이 과연 있었던가? 마지막에는 작은 거인 같은 멋진 목사님으로부터 무한한 격려를 받았다.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게 해주었다. 그날의 시간은 세상에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은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연수과정 중에 '소통'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다. 진정한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대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 이 태양아래 '홀로 옳음'이 없다. 틀린 것은 없다. 단지 다를 뿐이다. 중요한 것은 나의 옳음과 너의 옳음이 만나 새로운 옳음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의 의견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소통'은 이루어진다. YWCA 실무자들은 우리들의 생각과 의견을 진정을 담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니 만나서 구구절절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소통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 귀중한 것을 그날 제주도에서 배웠다.

2011 한 해를 돌아보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조력자로서의 진주YWCA



● 글 | 박영선 (진주YWCA 사무총장)

2011년 한 해가 벌써 저물어간다. 이번 해는 진주Y가 시민단체로서의 생명력을 발산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참여 프로그램에 집중했던 해였다. 그래서 동네 아파트의 여성회원들 사업 전략회의부터 시작하여 지역사회의 조력자 역할을 맡아 활동했던 한 해이다. 지난 4월부터는 생명사랑 공동체운동에 맞춰 '제로에너지타운 만들기' 사업으로 에너지절약 운동을 진행하였다. 1년 동안 '에너지절약 교실'과 '에너지절약 회의', 소동행사, 에너지절약 UCC 만들기, 캠페인 활동을 벌였다. 또한 자발적인 지역 소모임 활동을 활성화시키며, 마을 만들기 운동의 기초 작업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기억에 남는 일로, 8월17일에는 주민참여마당인 소동행사 '불을 끄고, 별을 쬐다'를 아파트 내 정자공원에서 펼쳐졌는데, 이 행사는 에너지 절약만을 촉구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아름답고 행복한 축제의 마당이었다. 또 올 한해는, 생명사랑운동을 집중적으로 펼쳤는데, 진주의 젓줄과 같은 남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나불천 하류에 EM과 흙공을 투입하여 오염된 하천 변화과정을 살피고, 정화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진주시민 스스로가 생명지킴의 주체임을 알게 하기 위하여 환경지킴이 가족봉사단을 구성하고, EM환경활동가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그리고 진주Y는 다문화사업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에 자립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교육이 절실함을 느꼈고, 수혜자에서 주체자로 설 수 있는 힘을 길러주어야 장기적인 연대가 가능하다고 보았기에 결혼이주여성들의 전용 공간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그래서 지역 기업들의 후원으로 '단비' 다문화 작은 도서관 개관을 하게 되었다. 또한 '엄마나라동화책'모임을 꾸려, 결혼이주여성들과 동화책 읽기 소모임을 운영하였다. 결혼이주여성들에게 그들의 문화공간을 마련해주었다는 점, 그리고 먼 타국에서도 자신들의 문화를 지키고 보존하며,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었다는 점에서 참으로 의미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11월 마지막 주에 있었던 '아시아그림책이야기콘서트'는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이 시점에 따뜻함과 평온함, 그리고 애정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이번 한 해도 열심히 달려왔다. 내년에도 변함없이 지역사회에서 생명사랑 공동체 운동으로 마을만들기를 위해 힘쓸 것이며, 흩어져 나가는 민들레 흩씨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2년이 기다려진다. 

2011년 한해를 돌이키며 - '돌봄으로 정의'를 향해 나아가다

● 글 | 박정순 (광주YWCA사회적기업 드림헬퍼사업단 센터장)




한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면서 Y실무자로서 일을 시작한지 11년 동안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열정과 갈등의 시간들 속에서 새로운 것을 위해 조금씩 옮겨왔던 발걸음 가운데 이루어졌거나 부족한 점들을 성찰해 본다.

광주Y는 90여년의 역사가운데 지난 40여 년 동안 지역사회의 일손이 필요한 가정에 투철한 직업의식과 사랑으로 훈련된 돌봄미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직업개발부 일을 2006년부터 맡아 진행해오면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예비 사회적 기업을 거쳐 지난 5월 사회적기업 “드림헬퍼 사업단”이 개소식을 갖게 되어 큰 보람을 얻었고, 이제는 자립의 틀을 갖추기 위해 열정과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

미래 지향적이고 이 지역에 맞는 여성들의 일자리는 또 무엇이 있을까? 특히 돌봄서비스 영역에 있어서 돌봄미 서비스의 표준화, 시스템화를 기반으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과 차별화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심도 있게 고민하는 가운데 제38회 전국대회에서 ‘돌봄으로 정의, 나눔으로 평화’가 정책으로 채택됨에 따라 더욱 우리가 고민하고 함께 해 나아갈 운동임을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다.

높이 날아 멀리 보고 싶던 새해의 꿈들. 주어진 현실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돌봄미 회원들!

매년 돌봄미들과 함께 하루 휴가 날을 정해 지역 문화 탐방을 떠난다. 이날만큼은 돌봄미들은 자연으로 돌아가 자신을 돌아보며 마음껏 하루를 만끽한다. 행복해하는 그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은 조건이 아니고 마음가짐이라던 말을 실감하게 된다. 해마다 새로운 돌봄미 회원들을 모집하면서 그들이 흘릴 땀방울이 미래를 꿈꾸게 하고 스스로를 변화, 발전 시켜 성장하는 모습이 더욱더 기대가 된다.

‘돌봄으로 정의’를 이루어갈 광주Y는 늘 회원과 함께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공동체, 세상과 소통하고 서로를 보듬어 이해하는 섬김과 나눔이 가득한 광주Y로 2012년 90주년을 맞이하면서 많은 회원들과 돌봄미 회원들, 이사, 위원, 직원들과 함께 힘차게 순례자의 길을 나서보려 한다.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믿음의 길을 향해. 

2011 노벨평화상, 여성을 선택하다

• 글 | 김지숙 (소설가, 전 연합회 간사)



2011 노벨평화상의 키워드는 '여성'

지난 10월, 스웨덴 한림원은 2011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라이베리아의 엘렌 존슨 설리프(Ellen Johnson Sirleaf), 레이마 그보위(Leymah Gbowee), 예맨의 타와쿨 카르만(Tawakkol Karman)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수상자들의 수상 이유에 대해 “평화 구축활동에 헌신하면서 여성들의 안전 및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비폭력적으로 투쟁했다”며 수상자들이 여성인권에 기여한 바를 전했다.

이번 수상은 여러 가지 면에서 주목 받았다. 우선 아프리카-중동지역의 평화운동에 관심이 쏠렸다는 점, 특히 예맨의 카르만의 수상으로 아랍권에서 일어난 반(反) 독재 민주화 운동인 ‘아랍의 봄’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부각했다는 점도 주목받았다. 그러나 가장 눈에 띄는 점은 3명의 여성 운동가가 공동수상했다는 점에서 더욱 눈에 띄었으며 의미도 컸다. 올해까지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여성은 모두 15명이고, 노벨상 전 부문의 여성 수상자는 모두 43명이었다. 이번 수상은 노벨상 수상의 역사에서도 남성에 비해 주목받지 못했던 여성의 활동에 이목을 집중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철의 여인, 평화운동가, 혁명의 어머니

수상자 중 가장 연장자인 라이베리아의 엘런 존슨 설리프 대통령은 ‘철의 여인’으로 불려왔다. 2006년 1월 아프리카 대륙의 첫 여성 대통령으로 취임한 설리프는 라이베리아 민주화를 위해 싸우는 과정에서 두 번의 투옥 경험과 두 번의 해외 망명 경험이 있다. 1970년대 후반 윌리엄 톨버트 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내던 시절 새뮤얼 도의 군사쿠데타 이후 해외로 망명한 것이다. 이후 찰스 테일러 정권에서도 내란 혐의로 두 번째 해외 망명길에 오른 바 있었다. 대통령 시절 설리프는 아프리카 최빈국인 라이베리아의 경제재건을 위한 정책을 써 매년 6~11%의 경제성장을 달성했다. 내무적으로 정치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부패척결도 그녀가

집중한 과제였다.


리머 보위는 여섯 아이의 어머니였다. 라이베리아의 내전으로 많은 여성이 목숨을 잃고 성폭행을 당하는 상황에 분개해 대담한 평화운동을 벌였다. 특히 감동적인 것은 기독교도와 이슬람교 여성 신도들이 뜻을 모으는 데 기여했다는 점이다. 보위와 규합한 여성들은 평화의 상징으로 흰색 옷을 입고 시위를 벌여 10년간 지속된 라이베리아가 내전에서 벗어나기를 촉구했다. 2002년 ‘평화를 위한 라이베리아 여성 대중행동’을 조직해 찰스 테일러 당시 대통령에게 반군과 평화 협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등 성과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또한 가나에 본부를 둔 ‘평화구축 여성 네트워크 아프리카(WIPSEN-Africa)’ 사무총장으로서 여성 권의 신장을 위해 꾸준히 활동해왔다.

마지막으로 ‘혁명의 어머니’라 불리는 예멘의 타우왁쿨 카르만은 서른 둘이라는 어린나이에도 ‘혁명의 어머니’라는 불리어왔다. 여성 언론인이자 인권운동가로, 예멘에서 반정부 시위를 주도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발표되기 직전까지도 예멘의 수도 사나의 ‘변화의 광장’에 설치된 텐트에서 머물며 시위를 했다. 리 압둘라 살레 대통령의 독재에 반대하는 학생 데모를 조직하고, 2005년 비정부기구 ‘자유 여성 언론인’을 만드는 등의 활동을 펼쳤다.

남성질서로 재편된 사회, 대안의 ‘여성’

노벨위원회가 세 명의 여성운동가를 공동수상자로 선정한 것에 대해, 남성질서로 재편된 사회에 새로운 메시지를 던져준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림원 측은 수상자를 선정하며 “사회 모든 계층에서 여성들이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남성과 동등한 기회를 갖지 못한다면 민주주의와 세계의 지속적인 평화를 얻을 수 없다”고 선정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세계 각국의 대표와 단체들도 여성들의 수상에 힘을 불어넣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전세계적으로 인권과 자유를 위해 싸우는 용감한 여성들이 있다”며 축하를 전

했다. 국제사면위원회(AI)와 유럽연합(EU)은 성명을 통해 “평등권의 촉진은 공정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평가했다.

여성들의 운동은 끊임없이 이뤄져왔다. 아웅산 수지 여사처럼 정치적으로 헌신한 인물도 있고 테레사 수녀처럼 종교적 희생을 삶으로 체화한 분도 있다. 이름 없이 음지에서 운동을 이어 나가는 여성활동가들도 있다. 이들의 활동이 노벨 평화상 수상을 통해 다시 힘을 얻는 계기를 갖고, 여성운동의 잠재력을 재평가 받는다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여성의 위상과 권리 증진을 통해 새로운 평화의 판을 짜는 데에 이번 수상이 모조록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애정남, 공평한 ‘룰’의 부재가 낳은 환호

● 글 | 황정현 (대중문화평론가)



자료출처
네이버블로그
(<http://blog.naver.com/pilcollins?Redirect=Log&logNo=140145852441>)



연인끼리 사귀면서 주고 받았던 선물은 헤어지면 어떻게, 무엇까지 돌려 받아야 하는지, 식당 카운터에 놓여있는 박하사탕은 몇 개까지 먹을 수 있는지. 이런 문제들, 참 “애매하죠~잉”. 그렇다. KBS <개그콘서트> 중 한 코너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이하 ‘애정남’)에서 말하듯 세상은 애매한 것 투성이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별해야 하고 빌려준 돈은 언제 돌려받아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독촉해야 하

는지 등. 복잡하고도 난해한 문제다. 신경쓸게 한두개가 아니다. ‘애정남’은 “밥값은 누가 내는게 맞는지” 등 이런 일상에서 결정하기 애매모호한 문제들에 대해 명쾌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것으로 공감과 웃음을 얻는 코너이다.

‘애정남’은 이런 애매하지만 쉽사리 결정했다간 ‘진상’, 혹은 ‘개념없는 사람’으로 비취질 우려가 있는 문제에 대해 규칙을 정해준다. 예를 들어 ‘애정남’에서 소개된 화장안한

‘민낯’의 기준은 연인이나 여자 동료를 만날 때 “화장 안했네?”라는 안부 섞인 말을 어느 순간 해야하는지 정해준다. 여성에게 화장 안했나라는 말은 때에 따라서 “화장 했는데 수척해 보이네.” 혹은 “화장이 잘 안먹었네.”라는 말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애정남’에 소개되는 고민내용들이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는 이유는 지극히 사소하지만, 대수롭지 않은 문제마냥 선불리 접근했다가는 주변인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쉬운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애정남’이 언급하는 부분은 굉장히 디테일한 사안들이다. 고민하자니 그 시간과 노력이 아깝고, 아무렇게나 결정하자니 그에 따른 뒷감당과 금전적 손실이 걱정되는 것이다. 이런 공감의 이유는 다양하다. 삶을 살아가는데 명확한 기준을 제시받고 있지 못하는 것도 있고, 흔히 말하는 ‘매너’와 사회적 ‘룰’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개개인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 것 때문일 수도 있다.


우리는 과도할 만큼 자주 ‘평가’를 받는다. 그것은 학벌, 토익점수 등 정량적 스펙일수도, 인성, 가치관 등 정성적 요소일 수도 있다. ‘뗏다리’ 건너면 아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혈연, 지연에 얽혀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평판’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는 세태에서 자신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분명 스트레스다. 물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태도와 행동을 신중하게 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런 관계망이 “우리가 남이가”라는 식으로 개인을 억압하거나 이용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것 또한 사실이지 않은가.

이는 자신의 행위에 의해 내려지는 평가나 적용되는 룰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애정남’에서 정의를 내려준 ‘빠른 OO년생’ 같은 경우, 자신의 생각대로 동갑 취급을 했는데 자신의 선배와 친구일 경우, 혹시라도 ‘버릇없는’ 경우로 비취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이다. 하지만 그것을 단순하게만 치부할 수 없는 것

은 대한민국 사회가 나이에 따른 서열을 중시하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일 뿐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평가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할 경우, 이런 사소한 행동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그리 큰 것이 되지 못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인의 눈, 판단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렇다. 말 그대로 ‘애매한’ 문제인 것이다.

‘애정남’에 사람들이 환호하는 부분은 이런 애매한 문제에 대해 “여기서 정하고 뒷말하기 없기!”라고 명쾌하게 합의점을 제시하는데서 온다. 그것은 ‘합의점’에 대한 결핍이 대중들 모두 느끼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사소한’ 일이 아닌 것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보다 심각한 사회적 갈등 상황에서도 우리 모두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받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보다 첨예한 이해관계의 충돌에 있어서는 법률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애정남’에서 느끼는 것처럼 법률적 충돌에 있어서 시민들이 느끼는 ‘명쾌함’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애정남’이 동의를 얻는 이유는 ‘며느리들이 명절에 친정 가는 문제’에 있어서 “그래야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시어머니들도 자신의 딸을 빨리 볼 수 있기 때문”이라거나 ‘옛 연인을 공개하는 문제’에 있어 “상대방이 한명을 얘기하면 나도 한명을 얘기해줘야 한다”는, 모든 당사자에게 공평하게 룰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바로 합의와 양보를 통한 공평한 해결책 제안이 그것이다.

공평하지 않은 기준에 의해 정해지는 평가에 대한 스트레스를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이 현재의 ‘애정남’에 대한 환호를 낳았다. ‘애정남’은 지극히 일상적인 문제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갈등 상황이 보다 다변화되고 복잡해지는 현실에서 갈등 상황 해결에 대한 모두가 합의할 만한 명확한 기준을 당당하게 누군가가 말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중들이 ‘애정남’에 보내는 환호는 보다 더 의미있게 봐야한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수원Y와의 인연


● 글 | 김준혁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수원Y 인문학 강좌 강의)



수원이 고향인 나는 중학교 때 Y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Y가 무엇을 뜻하는지 잘 몰랐다. 대학을 다니면서 학생운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 수원으로 내려와 지역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때 만난 인물들이 대부분 Y출신들이었다. 참 성품들이 좋은 사람들이었다. “Y다녀서 이렇게 성격이 좋은 거예요, 타고난 거예요?” 하고 선배에게 직접 물어보기도 하였다. 이 어이없는 질문에 피식 웃음으로 대답한 선배는 지금도 수원지역 시민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어린 시절 Y와 인연을 맺지 못한 한 때문인지 아들 녀석을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Y어린이스포츠팀에 보냈다. 그곳에서 아이는 행복해했고, 이곳에 아이를 보낸 것을 내가 인생 살면서 가장 잘한 결정이라고 아내에게 으스대기도 했다. Y와의 인연은 이렇게 깊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아내의 권고로 대학원에 진학하였고, 잠시 지역운동은 접어두고 역사공부에 매달렸다. 수원이 고향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조선의 개혁군주 정조를 전공하게 되었고, 1997년 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수원에서 필자의 할 일은 너무도 많아졌다. 그럼에도 수원이라는 동네의 반건달로 살아가는 필자를 Y에서는 부르지 않았다. 아직 내공이 부족해서 그런가 라며 자책을 할 때 드디어 수원Y에서 ‘인문학 강

의’ 요청이 들어왔다. 바로 수락했다. 사실 그 동안 우리 사회는 인문학이 바닥에 떨어진 시대였다. 이런 엄혹한 세상에서 수원Y가 인문학 강좌를 개설하여 필자에게 강의 의뢰를 한 것이었다. 인문학을 통해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는 Y의 뜻이 있었던 것이고, 그 뜻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하여 응했다. 그러나 속내는 따로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들어온 Y와 직접 인연을 맺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2학기부터 강의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학교 강의가 잡혀버린 것이다. 너무도 미안하고 죄송한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하늘을 원망했다. ‘오 주님! Y와 인연을 맺지 못하게 시샘하시는 것인가요!’ 하느님께서 이 원망을 들으셨는지 수원Y에서 강의 일정을 변경해주어서 드디어 약 30여년의 짝사랑을 해결하게 되었다.

Y에서의 인문학 강의를 통해 Y를 사랑하는 어머님들과 수원Y의 선생님들과 새로운 인연을 맺게 되었다. 사람들은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간다. 그런 사랑이 충만할 때 세상은 아름다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원Y와 필자가 사랑을 하고, 또한 수원Y가 세상을 사랑하니 우리의 만남은 결국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리라! 수원Y와의 인연이 그래서 고맙고 소중한 것이다. 

평생건강 코리아!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덕분에
대한민국은 건강 선진국입니다



식품안전, 내손으로 지킨다!



국민 식품안전포털 「식품나라」 개편 이벤트

UCC 공모전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위한
‘나만의 식품안전 노하우’를 알고 계신가요?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식품안전 노하우
지금 UCC에 담아 알려주세요!

● UCC 주제 :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나만의 ‘식품안전 노하우’

- 식중독, 이렇게 예방할 수 있다
- 과일, 채소 먹기 전, 잔류농약 줄이는 방법
- 가공식품에 든 식품첨가물 줄이려면?
- 건강의 적! 고열량·고지방 식단 피하기
- 기타 식품안전에 관한 모든 주제

● UCC 제출 내용

- 참가신청서 1부
(식품나라 홈페이지 www.foodnara.go.kr에서 다운로드)
- 동영상 혹은 사진 중 1가지 선택
(수상작은 원본으로 제출 가능해야 함)

동영상	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도 : 720*480 픽셀 • 시간 : 3분 이내 • 파일용량 : 100M 이하 • 파일형태 : avi, wmv, mpeg • 동영상 마지막 컷에 • 제작지(본인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00*1200 픽셀 이상 • 600만 화소이상 • 파일크기 : 1MB 이상 • 작품당 사진 10점 내외 포함 • 사진설명(JMP, DOC, PDF 형태) • 반드시 첨부

- UCC 등록 기간 : 2011년 11월 28일 (월) ~ 12월 11일 (일)
- UCC 등록 방법 : 이메일 접수 (foodnara@foodinfo.or.kr)
- 우수 UCC 발표 : 2011년 12월 16일 (금)
- 시상내역

구분	동영상		사진	
	상품	수상작품 수	상품	수상작품 수
국화상	갤럭시 탭	1개	DSLR 카메라	1개
장미상	백화점상품권 20만원	3개	백화점상품권 10만원	5개
민들레상	문화상품권 1만원	25개	문화상품권 1만원	25개

- ※ 수상 작품의 저작권은 식품안전정보센터에 귀속되며 작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제출된 UCC에 사용된 이미지, 음악, 영상, 텍스트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저작권 문제 등 제출된 UCC와 관련된 모든 법적 책임은 출품자가 부담합니다.
- ※ 시상내역은 작품수준 및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재제공과금은 수상자 부담입니다.

문의전화 (02)744-8168

www.foodnara.go.kr



내 젊은 날의 일기

● 글 | 김현자 ● 소소리

이 책은 YWCA경예연합위원이자 11, 12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김현자 선생의 네 번째 수필집이다. 지난날의 활동과 가족사, 생활에서 얻은 느낌들과 단상 그리고 삶의 감동을 글이라는 그릇에 오롯이 담아 놓았다. 일상에 파묻혀 쉽게 지나치게 되는 사소함을 포착하기도 하고, 관계를 맺고 사는 이들에 대한 애정과 존경을 드러낸다. 선생의 겸허한 생애가 배어나는 진실하고 영롱한 글귀들이 독자들의 마음을 따스하게 감싸준다.

한국여성의 심리구조

● 글 | 문은희 ● 니

이 책은 한국여성의 독특한 심리구조를 '포함(Inclusion)'이라는 행동 단위로 해부한다. 여성을 독자적 주체로 보기보다는 가족에 예측된 존재로 여기는 한국문화 속에서 여성적 삶의 어려움을 '포함'이라는 행동단위로 명쾌하게 분석한다. 서양의 심리학으로는 풀 수 없는 한국여성의 분열적 삶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으며, 한국여성을 위한 심리치유서이다.



두가지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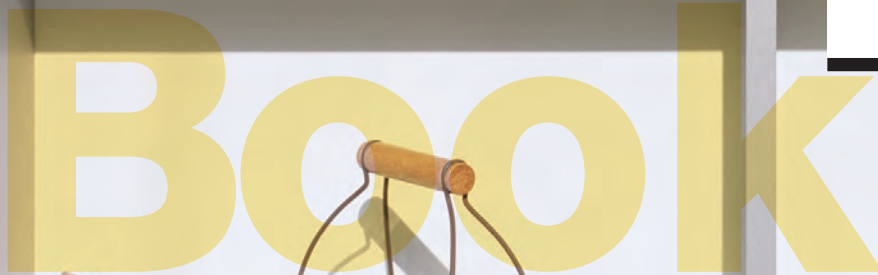
● 글 | 이사벨 미노스 마르틴스 ● 그림 | 베르나르두 카르발류
● 옮김 | 김현좌 ● 해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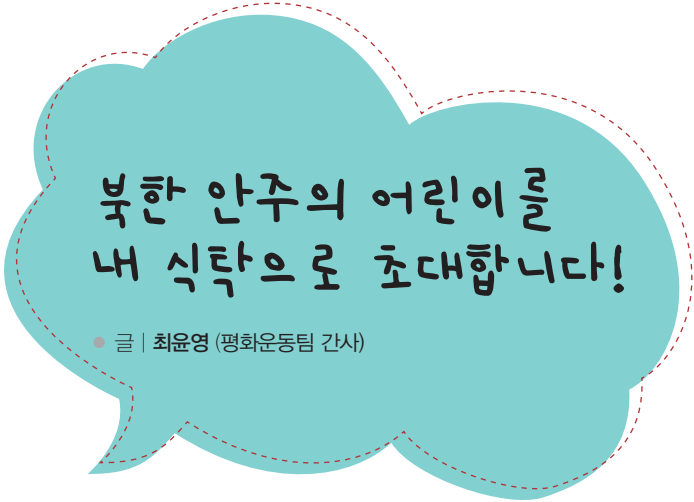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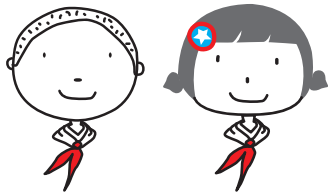
옛날 길로 가는 빨간 책과 고속도로로 가는 파란 책이 공존하는 '두 가지 길'. 이 책은 두 개의 이야기와 두 그림이 한 지면에 배치된 신선한 그림책이다. 두 가지 길의 여행을 통해서, 우리들 삶의 여정도 이것 중 어떤 것과 닮았음을 보게 된다. 어떤 길이 더 즐거운 여행길일까? 책을 통해 직접 경험해보시길!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공부

● 글 | 신영복 ● 상상너머

이 책은 시대의 스승 신영복, 백낙청 선생에서부터 청춘의 멘토 조국, 김여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멘토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기본이 되는 가치들에 대해 토론하며 나는 이야기들을 엮은 책이다. 교육, 정치, 환경, 인권 등의 생활밀착형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 삶을 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답을 찾고 있다. 이들이 제안하는 공부는 변화와 공존, 정의와 행복에 대한 성찰과 실천을 뜻한다. 자기변화를 위해, 문화적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 상식과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행복한 삶을 위해 고군분투한 그들의 이야기는 삶에 갈증을 느끼는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할 것이다.






북한 안주의 어린이를
내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글 | 최윤영 (평화운동팀 간사)

2011년 한국YWCA는 분단 전 YWCA가 있었던 5개 지역, 평양, 선천, 원산, 안주, 함흥 중 한 곳인 평안남도 안주지역의 영·유아를 위한 분유 모금을 한다. 안주 지역은 평안남도의 주요 도시로, 과거에는 풍부한 식량을 생산해 냈던 곡창지대였다. 그러나 계속되는 가뭄,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농경지는 파괴되었고, 내년 농사를 위한 종자씨도 먹어야 할 만큼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아기들과 그 산모다. 이유식 전의 아이들을 위한 분유는 턱없이 모자라고, 많은 영유아들이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으며, 영아의 사망률 또한 높다. 안주지역의 우리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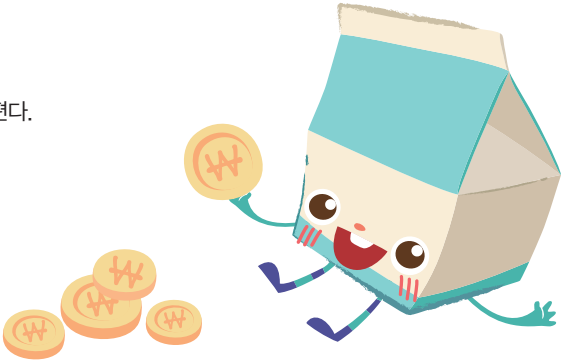
있다. YWCA는 선현식을 통하여 북한 안주지역의 14,000명 어린 천사들에게 분유를 전달하고자 한다. 선현식(先獻食)은 미리 내어 놓는다는 의미로 내 식사 중 일부를 미리 떼어 드린다는 의미다. 한 달에 3만원이면 0~5세 아기들의 분유 두 통을 구입할 수 있다. 하루 천 원씩 1년이면 365,000원이다. 선현의 의미로 한꺼번에 모금을 해도 좋고, 우유팩에 매일매일 천 원씩 모아 한 달마다 모금에 참여해도 좋다. 북한의 아이들을 식탁에 직접 초대하여 따뜻한 식사를 함께 나눌 수 없지만, 매 식사마다 아이들을 생각하며 선현하면 북한 안주 지역의 어린이에게 생명을 전달할 수 있다. 

사랑의 우유팩 신청방법

- 1 컴퓨터를 켜다.
- 2 민들레넷에 들어가 문서수발의 공문 2011-189번을 찾아 별첨 2를 본다.
- 3 별첨2의 신청서를 작성한다.
- 4 choeyy@ywca.or.kr 로 메일을 보낸다.
- 5 저금통은 무료! 필요한 만큼 신청한다.

사랑의 우유팩 이용방법

- 1 간지에 있는 우유팩을 오려 예쁘게 접는다.
- 2 사무실의 책상, 집의 식탁 등 눈에 자주 띄는 곳에 놓는다.
- 3 매일 점심시간 마다 천 원씩 넣어보자. 원한다면 아침 식사 300원, 점심 식사 300원, 저녁식사 400원으로 나누어 넣는 것도 가능하다!
- 4 후식을 조금 줄이고 우유팩에 넣는다면 북한의 한 아이가 맛있는 우유를 마실 수 있다.
- 5 매일하는 것이 어렵다면, 한꺼번에 365,000원을 저금통에 넣고 1년간 배불리 먹을 북한의 아이들을 생각하며 흐뭇하게 웃어보자.
- 6 입금방법: 짹 채운 우유팩을 들고 가까운 은행으로가, 농협: 386-17-000052 (사)한국YWCA연합회 앞으로 입금한다.
- 7 입금자명에 북한 ○○○으로 입금한다.



2011년 YWCA 북한어린이돕기 모금운동 후원자 명단

(이름은 가나다순)

회원YWCA

강릉	거제	경주	고양	광명	광양	광주	김해	남원
논산	대구	대전	동해	마산	목포	부산	부천	사천
서귀포	서울	서천	성남	속초	수원	순천	안동	안산
안양	양산	여수	울산	원주	의정부	익산	인천	전주
제주	제천	조치원	진주	진해	창원	천안	청주	춘천
충주	통영	파주	평택	포항	하남			

단체 후원

중곡교회	청심회	CMS 회원입금	대호상선	민들레영토
윤윤보 내과	장수흙침대	팜코지엘	해피빈	

개인 후원자(연합회)

강교자	고의순	구정혜	김 형	김재화	문복희	박미선	박용옥	박은실
손희진	신수미	심치선	원영희	유성희	윤명선	윤정분	이남희	이명혜
이은화	이필영	이혜숙	임국이	임성자	임진영	정동신	차명진	최미자
최수산나	최윤영	한미미	홍기자					

기타

YW/YM 공동예배헌금	서울Y장터 연합회 판매기금	세계대회 모금
연합회 아카데미팀회의 선헌식	전국대회 선헌식	정의운동가워크샵 선헌식

(2011년 12월 5일 기준)

총 모금액: 44,017,930 원

* 후원자 한분 한분께 가슴 깊이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 안주의 어린이들에게 뜻 깊은 성탄선물로 분유를 전달하기 희망합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철 내내 우리에게 맞난 채속
내어주던 땅이 겨울을 맞이하며 쉬고 있다.
새 봄을 맞이한 기쁨이다.



아이들 돌보며 살림하며 일하랴 1년을 10년 같이 정신없이 바쁜 한해를 보냈다.
나도 추운 겨울 아이들 끌어안고 긴 동면에 들고 싶다.
내가 꿈이 아닌지라 그게 어찌 가능한가 꿈일 뿐이지만
한 겨울 쉬는 기분으로 차분히 나를 돌아보고 기운찬 새해를 맞이하련다.

2011. 12
장화현신


모금은 사랑입니다

● 글 | 원영희 (국제운동 및 이슈연구팀)

나누는 손은 아름답다. 우리는 더 발전된 지도력 교육을 위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현실은 세계 1억 1천만 명의 어린이가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이 뒷전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빈곤과 물 부족, 열악한 위생환경문제가 우선인 과제이기 때문이다. 오래 전부터 한국YWCA는 회원YWCA를 통해 빈곤과 문맹, 불평등으로부터 탈출하고 재활하기 위한 건강한 운동을 펼쳐왔으며, 지역사회와 이 나라의 모든 구성원들의 고단한 삶을 위로하고 극복하도록 돕는 다양한 나눔 운동을 펼쳐왔다. 분명한 사실은 그 수많은 운동들을 가능하게 한 것은, 우리YWCA의 봉사정신에 물질로 동참하고 후원한 이들이다. 많은 자선 단체들이 귀한 사역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모금운동을 벌이는 것은 이것이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이기 때문이다. 건강한 운동에 물질과 기도의 후원은 사랑의 발로이다.

세계YWCA는 목적운동 기금사업인 “변화를 부르는 힘”(Power to Change)운동을 벌이고 있다. Power to Change Fund 모금운동을 하는데, 이 기금은 전 세계의 여성과 소녀들을 위한 리더십 프로그램 발전을 위한 기금이다. 세계YWCA에 의하면, 2007년까지 모은 기금은 2천5백만 달러(USD)로 한화로는 2억8천5백만 원 정도의 규모다. 한국도 지난 2007년 “변화를 부르는 힘”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3만4천 달러를 기탁했다. 세계 89개국에서 모인 Power to

Change의 기금은 전 세계의 YWCA 회원국들에게 신청과 선별절차를 거쳐 지급된다. 그 중 한 예로, 루마니아YWCA는 젊은 여성들과 소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발전을 위해 기금으로 약 1,630여명의 청소년들을 교육할 수 있었다. 작은 정성이 모여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내었다. 여러 회원YWCA 또한, 이러한 기적을 만들어 내는 일에 동참하면 좋겠다. 세계YWCA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아름다운재단이나 유니세프 등과 같은 곳에서도 모금활동을 하고 있다. 아름다운재단의 경우 모금과 후원 방법이 조직적이며 체계화되어있고, 유니세프같은 경우 1:1 후원을 특징으로 하여 신뢰를 얻고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구약시대부터 우리에게 십일조 정신을 일깨워 주셨다. 이는 공동체를 이끄는 사제들의 사역에도 필요한 물질이기도 하며 가난한 이들을 배려하고 돕기 위한 목적도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일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깨우쳐 주신다. 우리 사회가 가진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인프라의 십일조를 우리 YWCA운동으로 환원하는 멋진 미래 사회를 꿈꾸며 우리가 먼저 모금운동을 적극 실천할 좋은 때이다. 한국YWCA는 올해 북한어린이돕기를 위한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제 한국YWCA도 운동의 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모금운동을 벌여야 할 때이다. 



11월의 YWCA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p>고양Y '아이는 사춘기 엄마는 성장기' 저자와의 만남</p>	<p>서귀포Y 여성친화기업 릴레이협약 '우리는 일촌'</p> <p>서울Y 세종대왕 한글배움터 백일장</p> <p>성남Y 무지개인형극단 공연 (성남시청-7시)</p> <p>안동Y 회원증모운동 발대식</p> <p>인천Y 아침식사캠페인</p> <p>제천Y 이웃사랑 점심나누기 봉사</p>
	<p>부산Y '청춘극단'과 함께 하는 노인소 비자교육</p> <p>인천Y 직원공동체활동</p> <p>제주Y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희망나무가꾸기'</p>	<p>광양Y 바자회</p>	<p>속초Y 가정폭력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p> <p>안동Y 경북YWCA협의회 모임</p> <p>의정부Y 환경교육-휴공만들기</p>
6	7	8	9
	<p>고양Y '애들이 바르게 알고 잘 먹자' 캠페인</p> <p>서귀포Y 집단상담프로그램 '희망을잡아라'</p> <p>성남Y YWCA/YMCA기도모임</p> <p>포항Y 불우이웃돕기 기금마련 바자회</p> <p>안산Y 회원의 날 쌍쌍데이</p>	<p>대구Y YWCA/YMCA 합동기도회</p> <p>마산Y 씽크머니 공개수업</p> <p>순천Y 순천여성인력개발센터 청소년 진로, 직업 박람회</p> <p>인천Y 소비자포럼</p> <p>제주Y 일촌기업 간담회</p> <p>진주Y 씽크머니 고3특강교실</p> <p>창원Y 육아Together축제</p> <p>청주Y 3040 회원의 날</p>	<p>조치원Y 청춘대학 노래교실</p> <p>제주Y 2012 민들레회원증모개화식</p> <p>청주Y YWCA/YMCA 연합예배</p>
13	14	15	16
<p>연합회 직원연수(~23)</p> <p>마산Y 가족봉사단 환경정화 활동</p> <p>성남Y 인형극 공연 (새성남교회-12시)</p>		<p>남원Y 어린이 성문화 체험전</p> <p>서귀포Y 회원증모발대식</p> <p>성남Y 성남YWCA 기금행사</p> <p>수원Y 수원YMCA/YWCA 친선기도회</p> <p>제주Y 여성 잡 카페(job cafe)</p> <p>진해Y 동부지역위원회 지도자 양성(~23)</p> <p>통영Y 창립20주년 기념예배</p>	<p>광양Y 애들이 밥먹자 행사</p> <p>대구Y 교도소 선교</p> <p>마산Y 가족사랑의 날</p> <p>여수Y 직원연수(~24)</p> <p>의정부Y YWCA/YMCA 국제친선주간 연합예배</p> <p>청주Y 청주YWCA 김정바자회</p>
20	21	22	23
	<p>진주Y 하반기 직원연수</p>	<p>속초Y 녹색실천 강사교육실시</p> <p>인천Y 훌커밍데이</p> <p>진주Y YWCA/YMCA 친선기도회</p> <p>청주Y 씽크머니 학부모특강</p>	<p>속초Y 속초YWCA가정폭력상담소 거리 홍보</p> <p>안산Y 진로성장의 날개달기-한국거래소체험</p>
27	28	29	30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부산Y ECO-뷰티 클래스 천연비누 & 화장품 만들기
 속초Y 이웃사촌프로그램(씨티투어)
 제주Y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행복나무가꾸기'

3

강릉Y 실무자 연수
 광주Y 2012년 회원증모발대식
 대구Y 대구YWCA 큰장날 자연애
 창원Y 다문화댄스팀'라운'지역공연
 청주Y 서부복지관 사랑나눔 후원행사
 파주Y '애들이밥먹자'캠페인

4

논산Y 청소년 행복나눔 아나바다 나눔장터
 동해Y 회원대회
 마산Y 경남NGO박람회
 성남Y Y-틴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교육
 안동Y 다문화 초청잔치 축하공연
 안산Y 진로성장의 날개달기-만화가체험
 제주Y 민들레학교 우쿨렐레동아리캠프
 진주Y 어린이환경동화구연대회&우리시대짚순 이페스티벌

5

강릉Y 청소년유해환경캠페인
 마산Y 다문화정책토론회
 부산Y 부산YWCA 합창단 정기연주회
 속초Y 다문화가정 부모교육
 수원Y 결혼이주여성 DIY전시회
 의정부Y Y틴 주식회사 총회
 제천Y 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11)
 진주Y 청소년유해업소 합동단속·캠페인

10

제주Y 통합상담소 개소20주년 기념식 '더불어 평화'
 창원Y 아나바다장터

11

부산Y 어린이 ECO School 슬로푸드 클래스
 서귀포Y 농어촌 속 보물찾기
 서울Y 회원 축제의 날
 여수Y 청소년 문화존
 인천Y 시대표 청소년문화존 폐막제
 청주Y Y-틴 TM피치 리더십교육 및 미디어멘토교육

12

광주Y YWCA/YMCA기도주간 기념예배
 수원Y 결혼이주여성 김장체험
 순천Y YWCA/YMCA 공동기도주간 예배
 안동Y YWCA/YMCA친선기도회
 안산Y YWCA/YMCA 공동기도회
 안양Y 이웃사랑나눔의 날
 제주Y YWCA/YMCA 연합기도회

17

대구Y 애들이밥먹자 캠페인
 서귀포Y 평화이카데미
 서울Y 추수감사 직장인 금요일예배
 안산Y 추수감사예배
 인천Y 전직원연수 (~19)

18

광주Y Y-틴 추수감사 찬양예배
 논산Y 청소년 요리교실 요리북 조리북
 성남Y 제13회 청소년을 위한 음악여행
 여수Y 아나바다장터

19

광양Y YWCA/YMCA기도모임
 창원Y 합동결혼식

24

강릉Y 다문화가정 밀반찬 교실
 수원Y 인문학 특강
 안산Y 여성친화도시 사업보고회
 진주Y 아시아그림책이야기콘서트
 창원Y 아나바다장터
 파주Y 양성평등인형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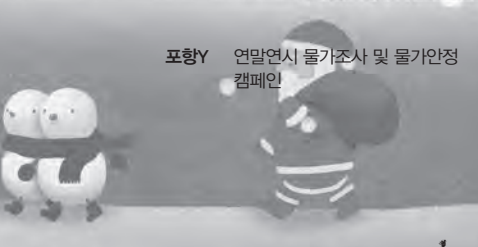
25

북부지역 Y-틴 회원대회
 서귀포Y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토요체험
 안산Y 재활용 나눔장터
 제주Y 민들레학교 정기연주회
 청주Y 어린이 생태학교, 아나바다 거리장터

26

12월의 YWCA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4		5	6
	수원Y 성탄예배	마산Y 회원의 밤 서귀포Y 제11회 서귀포YWCA소년 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안양Y 송년의 밤	안산Y 진로성장의 날개달기-한의사체험 포항Y 불우이웃돕기 사랑의 김장나누기
11		12	13
	남원Y 성탄감사예배	여수Y 합창단 정기공연(여수시민회관) 진주Y 성탄축하예배	안산Y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보고회 의정부Y 성탄축하예배 및 잔치
18		19	20
	남원Y 성탄감사예배	여수Y 합창단 정기공연(여수시민회관) 진주Y 성탄축하예배	부산Y 돌봄과 살림 '회원성탄제'
25		26	27
MERRY CHRISTMAS	의정부Y 구직회원 재교육 및 송년회	광주Y 전직원 송년의 밤	대구Y 교도소 선교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25		26	27
		26	27

<p style="text-align: center;">목요일</p> 	<p style="text-align: center;">금요일</p>	<p style="text-align: center;">토요일</p>
<p>포항Y 연말연시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p> <p style="text-align: right;">1</p>	<p>성남Y 두레회원의 날 행사 인천Y YWCA/YMCA 연합예배 진해Y 지역조직운동실무자 워크샵 통영Y 회원의날 포항Y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캠페인</p> <p style="text-align: right;">2</p>	<p>고양Y 교류분석 부부상담</p> <p style="text-align: right;">3</p>
<p>연합회 성탄예배 서귀포Y 도전골든벨 여수Y 프로그램평가회</p> <p style="text-align: right;">8</p>	<p>고양Y 자원봉사자의 밤 서울Y 서울YWCA 제89회 창립기념일 안동Y 고3 청소년을 위한 자존감 높이기 특강 및 축제</p> <p style="text-align: right;">9</p>	<p>마산Y 청소년 플라마켓 서귀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토요체험 안산Y 회원의 날 쌍쌍데이</p> <p style="text-align: right;">10</p>
<p>고양Y 성탄예배 광주Y 성탄축하예배 및 발표회 부산Y 부산YWCA 회원성탄제 순천Y 순천YWCA 회원 감사의 밤 안동Y 직원연수(~16) 파주Y 성탄축하예배</p> <p style="text-align: right;">15</p>	<p>성남Y 한국어교실 수료식 및 송년 모임 창원Y 이웃돕기 "사랑의 김장바자회" 연합회 90주년 준비 회원Y 지도자 확대회의</p> <p style="text-align: right;">16</p>	<p>서귀포Y 크리스마스 파티 및 발표회 여수Y 아나바다나눔장터</p> <p style="text-align: right;">17</p>
<p>안산Y 진로캠프(~23) 의정부Y 씩크머니 특강(의정부여중) 제주Y 역할극을 통한 성폭력예방교육</p> <p style="text-align: right;">22</p>	<p>안산Y 성탄축하예배 제천Y 창립기념회 및 교육복지사업 발표회 진주Y 어린이집 성탄과 산타행사</p> <p style="text-align: right;">23</p>	<p>안산Y 청소년동아리 연합축제</p> <p style="text-align: right;">24</p>
<p>수원Y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실 수료식</p> <p style="text-align: right;">29</p>	<p>대구Y 자개발국기여성의 지도력개발을 위한 장학사업 여수Y 중무예배 진주Y 중무예배</p> <p style="text-align: right;">30</p>	<p>서귀포Y 송년잔치 및 사진전시회</p> <p style="text-align: right;">31</p>

2011 '배우고 체험하는 청소년 금융교실 씩크머니' 시상식 및 평가연구 보고회



11월 15일 서울YWCA 마루에서 2011 '배우고 체험하는 청소년 금융교실-씩크머니' 시상식이 열렸다. 올해 씩크머니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금융교육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회원Y와 강사, 씩크머니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후원해준 협력학교와 씨티은행지점을 시상하였다. 또한 6회째를 맞은 씩크머니를 기념하여 평가연구 보고회와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평가연구 보고회는 지난 6년간 진행되어온 씩크머니 프로그램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평가하고, 통계적 분석을 통해 향후 씩크머니 프로그램과 청소년금융교육의 개선에 유용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세계YWCA&YMCA 국제친선 및 기도주간 연합예배



세계YWCA&YMCA 국제친선 및 기도주간(2011.11.13~19)을 기념하여 11월 7일 오전 9시 30분, 연합회 강당에서 한국YWCA&한국YMCA 연합예배가 있었다. 이 날 예배는 한국YWCA연합회가 주관하였으며, 한국YWCA연합회, 서울YWCA, 한국YMCA연맹의 회장단 및 실무자 8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천진 목사는 '거친 들판의 푸른 솔잎처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

해 YWCA와 YMCA 안에 청년정신을 회복하여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선포하였다. (자세한 내용 P.15~)

11월, 12월 YWCA월례아침기도회

연합회는 11월 1일과 12월 1일 오전 7시 30분 월례아침기도회를 열고 YWCA와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YWCA월례아침기도회는 연합회가 제공하는 설교영상을 통해 전국의 회원Y가 함께 하고 있으며 기도회를 통해 YWCA를 영적으로 깨우고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자세한 내용 P.16~)

제6차 YWCA정의포럼

11월 24일 연합회 강당에서 제6차 <YWCA

정의포럼- YWCA정의약속을 이어 평화를 열다>이 열렸다. 이번 정의포럼에서는 정의운동과 평화운동을 연계한 정의평화의 연결점과 지향점 그리고 실천방법을 논의했다. 2011년 마지막 정의포럼을 통하여 1년간 논의해왔던 철학적, 신학적, 사회문화적 YWCA정의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며 내년도에 펼쳐질 평화운동을 이어가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자세한 내용 P.18~)

2011년 2차년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평가토론회 및 교사연수

11월 10일 연합회 강당에서 지역아동센터 센터장과 후원처, 주관단체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2차년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평가토론회가 있었다. 또한 11월 22일부터 24까지 2박 3일간 제주에서 총 40여

명이 참가한 3차 지역아동센터 교사 연수가 있었다.(자세한 내용 P.22~)

연합회 직원연수



11월 20일~23일까지 3박4일간 제주도에 2012년을 준비하는 활동가의 평화순례의 시작으로 연합회 직원연수를 진행하였다. 연합회 직원연수를 통하여 Y운동과 순례길의 사명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YWCA 인터넷 방송국(YWBS) 1기 베트남어 방송 공아우cung nhau 시작

한국YWCA 인터넷 방송국(YWBS)은, 11월 14일부터 베트남어 방송 '공아우cung nhau'를 시작했다. 베트남어 방송은 네 명의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응우엔김빈, 응우엔띠땀, 이수영, 부티후엔)이 아나운서로 활동하며, 결혼이주여성들의 육아, 문화, 생활정보, 뉴스 등을 주제로 방송한다. 방송시간은 매주 월요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이며, 아프리카TV(<http://afreeca.com/ywca1>)를 통해 들을 수 있다. 이 방송은 지난 3년간 하기성, 권상범, 이글톤 컴퍼니의 YWCA 결혼이주여성운동 후원을 바탕으로 시작된 것이다.

(사)한국YWCA연합회 임시총회
연합회는 11월 28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군산YWCA 자격 취소를 결의하였다. 군산YWCA는 운영상의 문제로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활동이 정지되었으며 이후 이사진과 사무총장 등 집행진이 책임을 지고 사임함에 따라 연합회가 파견한 이사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어 왔었다.

2011년 YWCA연합회 성탄예배

연합회는 12월 8일 오전 11시 연합회 강당에서 2011년 YWCA연합회 성탄예배를 드렸다. 김근상 성공회 주교가 말씀을 선포하였고, 정의와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2012년에도 정의와 평화의 순례길을 이어갈 것을 다짐하였다.

YWCA 90주년 준비 회원Y 지도자 확대회의

12월 16일 연합회 강당에서 YWCA 90주년 준비 회원Y 지도자 확대회의가 있었다. 연합회 90주년 준비위원회 위원들과 회원Y 회장, 사무총장들은 2012년 한국YWCA 90주년의 의미, 100년 비전을 향한 로드맵, 90주년 기념행사 등에 관해 마음과 의견을 나누었고, YWCA회원 모두가 90주년을 감사와 희망으로 맞이할 것을 소망하였다.

민들레넷 활용방법 기초교육

연합회는 11월 16일 민들레넷 활용방법에 대한 기초교육을 실시하였다. 18개 회원YWCA 총 27명의 실무자가 교육에 참석하였으며 민들레넷을 통한 회원등록과 관리방법 등 전반적인 활용 방법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였다.

2011 YWCA 직업훈련담당실무자 워크숍

2011 YWCA 직업훈련담당실무자 워크숍이 11월 16일~17일 연합회 강당에서 35개 Y 실무자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YWCA 돌봄 서비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작은 한걸음'을 주제로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제에 이어 최영미 전국실업단체연대 국장이 돌봄정책관련 대내외 정책변화와 다른 단체의 현황에 대해 설명, 돌봄미들의 인권과 사회권보장에 대한 대사회인식변화 운동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17일에는 표대중 노무사가 'ILO의 가사노동자 협약 비준과 한국에의 시사점'에 이어 무료직업소개사업 문제발생 현황과 대처방안을 설명하였다.

동정

- ◎ 유성희 연합회 사무총장, 윤명선 위원이 연변민들레문화교류협회 어린이집 운영감사 요청을 받아 11.9~12까지 연변민들레문화교류협회를 방문하였다.
- ◎ 제16회 소비자의 날을 기념하여 서울YWCA가 대통령 표창을, 안양YWCA 임영숙 회장이 국무총리표창을, 울산YWCA 박순자 회장이 공정거래위원장상을 수상했다.
- ◎ 원영희 연합회 실행위원은 세계Y 이사로써 11.18~21까지 진행된 세계YWCA 이사회에 참석하였다.
- ◎ 김은경, 한미미 연합회 실행위원과 마산Y 이애라 간사, 황수진 연합회 간사가 11.27~12.1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City-FT Financial Education Summit에 참석하였다.

경기 지역

고양 YWCA

● 전선영 간사

고양YWCA 가정폭력 상담소 새단장

고양Y 가정폭력 상담소가 아모레퍼시픽 복지재단과 한국여성재단이 함께 진행하는 여성 생활/이용시설 및 비영리 여성단체의 시설개보수 사업 'ARITUM in U' 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10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공사가 진행되었다.

- 11월 14일 '애들이 바르게 알고 잘 먹자' 캠페인

성남 YWCA

● 황정아 간사

다문화엄마의 한국 민주사회 따라잡기

성남Y는 10월 8일 결혼이민여성가족과 성남Y회원들이 비무장지대를 방문하였다. 도라산 전망대와 제3땅굴 견학을 통해 한국의 분단현실을 이해하고 그 아픔을 함께 느끼며, 평화로운 한반도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또 오랜 기간 민간인의 거주□출입의 제한으로 인해 잘 보존된 비무장지대의 자연생태 속에서 가을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느껴보았다.

아침밥먹기 캠페인

성남Y는 10월 11일 생명먹을거리 운동의 일환으로 제2기 '애들이, 밥먹자' 사업을 진행하였다. 청소년에 국한되었던 기존의 '애들이 밥먹자'에서 탈피하여 20~40대 직장의 이동이 많은 야탑역에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우리 쌀로 만든 떡을 나눠주며 아침식사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사회에 YWCA의 생명살림 먹을거리 운동에 대해 홍보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 10월 1일 Y-틴 탄천모니터, 성남시 청소년 문화존
- 10월 1일 녹색생활 실천 캠페인

- 10월 21일 청소년유해환경 야간 지도활동

수원 YWCA

● 이민정 간사

4분기 본지부 실무자 포럼

수원Y는 11월 14일 본지부 실무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에서 정의운동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푸른경기21 산업관 사무처장의 강의를 들었다. 2012년~2013년 YWCA 중점사업을 수원 지역에서 어떻게 실행할지 계획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원YWCA/YMCA 친선기도회

11월 22일 수원YWCA 강당에서 수원YMCA/YWCA 회원 70여명이 참석하여 '청년, 권리와 정의를 위해 외치다'라는 주제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며 수원YMCA회원과 수원YWCA회원이 친목을 다졌다.

- 10월 19일 생활텃밭보급운동, 알음알음나눔장터
- 11월 10일 결혼이주여성 DIY 공예품 전시회
- 11월 25일 인문학 특강

안산 YWCA

● 문성은 간사

지도력 양성 워크숍

안산Y는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1박2일간 본부 및 부속시설 실무자 36명이 참여한 가운데 강원도 설악에서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여성 운동의 역사와 여성인권 등에 대한 강의를 듣고, MBTI 성격유형검사를 했다. 이튿날에는 설악산 가을산행을 함께 하며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족과 함께 떠나는 가을여행 다문화가족캠프

안산Y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1박2일간 다문화가족 20가정을 대상으로 대부도에서 가족캠프를 진행하였다. 부부교육과 가족 레크레이션, 승마체험 등을 하며 한마음으로 화합하고 행복한 추억을 만든 소중한 여행이 되었다.

- 10월 20일 YWCA/YMCA 합동예배 및 성서특강

- 10월 22일 다문화가족 캠프(~23일)

안양 YWCA

●이하나 간사

이웃사랑 나눔의 날

안양Y 성인클럽협의회는 11월 17일 호계1동의 소외된 이웃을 모시고 '안양YWCA 이웃사랑 나눔의 날'을 마련했다. 안양Y 6개 성인클럽과 클럽준비회, 소모임의 임원들이 준비하고 (주)농심안양공장, 호계시장 상인회가 후원한 이번 나눔의 날은 안양Y가 위치한 호계동의 독거어르신, 장애우, 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한부모가정 등 60명의 이웃을 초대하여 따뜻한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의정부 YWCA

●윤소영 간사

생명사랑녹색 나눔장터

의정부Y는 10월 29일 '생명사랑녹색 나눔장터'를 화관 앞 잔디마당에서 진행하였다. 지역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근거리지역 녹색 상품 로컬푸드를 직거래하고 학생벼룩시장을 하였으며, 아나바다로 재활용품을 판매하였다. 또한 다양한 먹거리 판매와 함께 베트남 문화 체험부스도 열었다.

- 11월 9일 EM무료교육
- 11월 10일 Y틴 주식회사 총회 실시
- 11월 23일 YWCA/YMCA 국제친선주간연합예배

파주 YWCA

●이정심 간사

파주 지역아동센터 금융경제교육 실시 및 한국은행 화폐금융박물관 견학

파주Y는 2011년 자원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된 금융경제교육을 10월10일부터 21일까지 성체지역아동센터와 솔로몬지역아동센터에서 실시했다. 한 해 동안 금융경제교육을 받았던 지역아동센터는 모두 4곳이었고, 10월22일에는 교육받은 학생들을 인솔하여 한국은행 화폐금융박물관 견학을 다녀왔다.

'애들아, 밥먹자'캠페인 및 안전한 먹을거리 교육

파주Y는 11월4일 등교시간에 파주문발초등학교 전교생들과 시민들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하며, '애들아, 밥먹자' 캠페인을 벌였다. 또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안전한먹을거리 교육도 실시했다. 이 캠페인은 아침식사와 우리 쌀 소비의 중요성을 알게 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의 식생활문화를 확산시켜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며, 올바른 식생활이 생태계를 살리는 일과도 직결됨을 알리고자 함이었다.

- 11월15일 가사도우미교육(~17일)
- 11월25일 양성평등인형극



대구 YWCA

●김세형 간사

대구YWCA회원과 함께하는 가을음악회

대구Y는 10월 20일 대백프라자 프라임홀에서 대구Y 회원 280여명이 함께하는 가을음악회를 열었다. 대구백화점 장소 후원과 여러 기관의 후원금으로 지원된 이번 행사는 모든 진행이 자원봉사와 후원으로 이루어져 더욱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회원들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YWCA가 되길 기대한다.

새터민·결혼이민여성과 함께하는 어깨동무

대구Y는 10월 15일 성주가야산 녹색체험마을로 새터민 가족 22명과 결혼이민여성 가족 14명, 평화지기 봉사자 6명이 함께 가을나들이를 떠났다. 성주 가야산에 위치한 야생화식물원 관람과 사과따기체험을 경험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을 통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임을 느끼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마산 YWCA

●이애라 간사

레인보우 국시장터 개소식

마산Y 부설 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10월 19일 마산창동에 레인보우 국시장터 개소식을 하고 영업을 시작하였다. 한국여성재단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의 후원으로 다문화가정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레인보우 국시장터'는 지난 6월 4명의 결혼이민자로 요리사를 구성하고 6가지 메뉴를 개발해 개업하였다. 다문화 여성들이 자립하여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을 기대해본다.

- 11월 15일 씩크머니 공개수업

부산 YWCA

●여진경 간사

부산YWCA 창립 65주년 기념행사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지구'

부산Y는 10월 1일 삼락체육공원에서 부산YWCA 창립 65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EM흙공 1만개를 하천에 투하, 지역민과 함께 하는 문화공연, 친환경 생활재 장날, 다양한 체험마당, 폐현수막 재활용 장바구니 나누기와 출산장려캠페인 등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지구'의 실천운동을 전개하였다.

부산YWCA 창립 65주년 기념 생명사랑 음악회

부산Y는 11월 15일 SBS 김정택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는 부산YWCA 창립 65주년 기념 생명사랑 음악회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진행하였다. 부산YWCA 창립 65주년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향후 100주년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다.

- 10월 13일 세계적인 인권운동가 수전 솔티 여사의 평화 강연회
- 10월 22일 어린이 농촌체험캠프 4차 가을놀이·겨울맞이
- 10월 29일 남북주민 화합 체육대회
- 11월 7일 부산YWCA 합창단 제 13회 정기연주회
- 11월 10일 부산YWCA 전통문화연구회 옛소리 20주년 정기공연 '처음처럼'

안동 YWCA

●강주영 간사

다문화 자조모임 플라워걸스 공연

안동Y 다문화 자조모임인 플라워 걸스팀은 10월 7일, 22일 안동시 탈춤축제와 평생학습 축제에 초청되어 축하공연을 하였다. 플라워 걸스팀은 지역의 여러 곳에 초청되어 활발한 공연을 펼치고 있다. 한국에 이주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에게 스스로 멘토가 되어 도움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는 밸리댄스반도 만들어 모임을 이어갈 예정이다.

- 10월 25일 실버대 가을 소풍
- 11월 17일 안동YWCA/YMCA 친선기도회
- 11월 26일 청소년 문화존

진주 YWCA

●최예진 간사

어린이환경동화구연대회 & 우리시대짚순이페스티벌

진주Y는 11월 5일 진주Y 강당에서 어린이환경동화구연대회 & 우리시대짚순이페스티벌을 열었다. 100여명이 참여하여, 체험존과 이벤트존을 운영하였다. 어린이 동화구연, 환경아 놀자 모둠퀴즈, 경남문화예술센터의 '먹사버천이의 모험' 환경 연극 공연, 결혼이주여성의 의류리폼패션쇼가 있었다.

제로에너지 절약타운 시상식

진주Y는 10월 29일 상대한보타운에서 '전기에너지 줄이기 운동 시상식'이 열렸다. 2년간 상대한보타운 주민과 함께 전기에너지 10% 절감을 목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 전년대비(3월~9월) 3%의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이는 경제적으로 환산시 8,707,200원의 절약 효과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 10월 22일 '진주지역아동센터연합회' 체육대회
- 10월 22일 '세대공감 프로젝트-행복한 한울타리'
- 10월 27일 식생활교육네트워크 발족식 및 설명회
- 11월 25일 다문화작은도서관 '단비' 아시아그림책이야기콘서트
- 11월 29일 YWCA/YMCA 친선기도회

창원 YWCA

● 황은진 간사

미리 알아보는 대학생의 육아-Together

창원Y는 11월 15일 창원대학교 운동장에서 대학생들의 육아 인식개선을 위한 행사를 가졌다. 육아상식골든벨에서는 아이패드를 걸고 학생들의 뜨거운 육아정책 상식경연이 이어졌다. 이 행사를 통해 창원Y는 지역 대학생들과 함께 육아상식과 정책을 즐겁게 공유하는 기회가 되었다.

- 10월13일 유예은의 사랑의 음악회
- 10월 27일 다문화여성합창단 통영 가을여행
- 10월 24일 저소득가정 합동결혼식

통영 YWCA

● 임정순 부장

민들레누비 예비사회적기업 선정

통영Y는 2008년부터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생활정착을 돕기 위해 통영전통누비기술교육을 시작하였고, 지난 9월에 “경남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선정되었다.

포항 YWCA

● 김윤미 부장

결혼이민여성 '한하늘 한뎡' 캠페인

포항Y는 10월 19일 결혼이민여성 '한하늘 한뎡' 캠페인으로 음식을 통한 문화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결혼이민여성 자국요리 경연대회 "장금이를 찾아라"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의 대상은 베트남이민여

성 팜페이 투짱의 베트남카레와 새우돼지쌈이 차지하였다.

사랑의 주먹밥 나누기 캠페인

포항Y는 10월 20일에서 21일 Y-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등교시간 각 학교 정문에서 우리쌀, 우리 식재료를 만든 사랑의 주먹밥 나누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아침식탁을 통해 건강한 가족문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쌀 소비촉진효과와 함께 자녀의 바른 양육을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10월 12일 포항YWCA 제32주년 창립기념 예배
- 11월 5일 포항YWCA합창단 정기연주회
- 11월 14일 불우이웃돕기 사랑의 김장나누기 기금마련 의류 대 바자회
- 11월 12일 여성인력개발센터 - 제11회 어린이 동화구연대회



강릉 YWCA

● 전정미 간사

이웃사랑 후원을 위한 민들레 나눔장터

강릉Y는 10월 13일 우리의 이웃인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독거어르신과 청소년들을 위한 '이웃사랑 민들레 나눔장터'를 미관광장에서 하였다. 나눔장터를 이용한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받았으며 이사, 위원과 회원들의 헌신적인 봉사로 이루어진 뜻 깊은 행사였다.

여성의원 및 기자 간담회

강릉Y는 11월8일 '여성의원 및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एको지능 깨우기..., 여성이 움직여야 환경이 산다."는 주제로 간담회를 하였다. YWCA에 바라는 점과 지역내 시민단체로서의 역할, 여성으로 이루

어진 운동체로서 환경운동의 실천을 강조하였다.

- 10월 8일 차 없는 거리 녹색시민 한마당
- 10월 29일 청소년유해환경 음주·흡연예방 교육

동해 YWCA

● 송원진 간사

공공기관 일회용품 줄이기 협약식

동해Y는 10월 14일 동해경찰서에서「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을 통하여 두 기관은 YWCA 생명사랑 공동체운동 정신에 입각하여 지역사회의 일회용품 분리수거 및 사용 줄이기 실천에 앞장 서 가기로 하였다.

- 10월 13일 여성인권아카데미
- 10월 22일 가족체험프로그램 행복한 동행
- 10월 29일 청소년어울마당 '청소년발언대'

서울 YWCA

● 박서영 간사

서울YWCA 큰장날

서울Y 큰장날이 10월 13일 한국YWCA연합회 주차장에서 열렸다. 믿을 수 있는 상품과 좋은 가격, 다양한 품목으로 준비된 장날과 아나바다 장터가 진행되었다. 2,000여 명의 회원들과 시민들의 호응 속에 진행된 알뜰한 살림 장날의 현장이었다.

서울시 여성정책 모니터링 보고 및 정책 제안 포럼

서울Y는 서울시 여성정책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포럼을 10월 11일에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서울YWCA '서울시 여성정책 UP&IN 프로젝트' 일환으로 서울 여성시민이 주축이 된 정책 모니터링 활동과 시민초청 간담회 등의 결과를 토대로 공식적인 여성정책 제안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 10월 1일 성동청소년문화의집 '세계지도 그리기'
- 10월 8일 가락종합사회복지관 송파어울림 축제 '가족연날리기 대회'

속초 YWCA

● 김현희 간사

다문화가정지킴이 위촉식

속초Y는 10월 5일 속초경찰서의 위촉으로 다문화가정지킴이 위촉식을 가졌다. 23명의 다문화가정을 방문하는 방문지도사로 가정의 안전과 위급 상황에 대한 대처와 신고로 다문화가정의 안전한 지킴이가 되어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데 일조를 할 것이다.

속초시 설악제 참여

속초Y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10월 22일~23일 속초시 설악제에서 다문화의 인식개선과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다문화음식 시식과, 결혼이민여성이 직접 만든 테디베어를 전시, 각국의상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운영하였다.

- 10월 14일 이웃사촌프로그램

인천 YWCA

● 김주희 간사

30-40 회원의 날

인천Y는 10월 18일 회원의 날 행사로 서울Y와 연계하여 강화도를 방문하여 국가 농식품 인증제도 교육과 함께 현지 생산농가를 방문하고 체험하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연변-인천 평화포럼

인천Y는 2005년부터 아시아 여성연대를 통한 평화세상 만들기를 위해 연변여성단체(연변민들레문화교류협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북한·연변 어린이 돕기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에 인천YWCA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공동주관으로 '인천-연변 여성 평화포럼' 이 '여성이 만드는 평화세상'을 주제로 10월 7일 오후 2시 인천YWCA 강당에서 열렸다.

- 10월 5일 어린이 성교육 자원봉사자 양성과정 수료식
- 10월 30일 청소년 문화 대축제
- 11월 2일 아침식사 캠페인

서부 지역

광양 YWCA

● 황보영 간사

광양YWCA 바자회

광양Y는 11월8일 바자회를 본사무살1층에서 열었다. 직접 담근 김치와 돈까스 등 다양한 제품 등을 좋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여 물건을 구입하신 분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 11월24일 YWCA/YMCA 기도모임

광주 YWCA

● 서정현 부장

제2차 이사·위원 연수회

광주Y는 11월1일~2일 장성 한마음자연학교에서 제2차 이사·위원 연수가 있었다. 80명이 참석하였고, 영성훈련을 통한 지도자의 자세와 지도자 코칭 리더십 실제, YWCA 중점운동 워크숍을 통해 2012년을 향한 YWCA의 새로운 중점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도력을 향상시키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연수회를 통해 100년을 향한 광주 YWCA의 비전을 다짐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회원증모 50일 운동 발대식

광주Y는 11월4일 대강당에서 2012 회원증모 50일 운동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김형(한국YWCA부회장) 강사를 모시고 “우리는 왜 회원증모를 해야하는가?” 강연을 듣고 12월23일까지 회원5,000명 이상, 회비 2억 2천 만원의 목표달성을 위해 조원 모두 각오를 다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 10월 19일 가을 큰 장날(~20일)
- 10월 29일 Y-틴 청소년노래마당(개사곡경연대회)

남원 YWCA

● 조윤희 팀장

어린이 성문화 체험전(알성달성 성문화 체험전)

남원Y에서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성문화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알성달성 성문화 체험전을 11월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남원Y 회관에서 실시하였다. 지역 내 어린이집,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시청각적 체험형태의 성교육으로 성적 자기결정능력과 양성평등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사·위원연수

남원Y는 10월 13일 장흥에서 이사·위원연수를 진행하였다. 이사·위원을 위한 YWCA의 이해와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값진 시간을 가졌고, 각자의 역할을 이해하여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자발적인 회원 운동체의 리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11월 15일 아동·여성폭력 없는 ‘행복한 세상’ 캠페인

서귀포 YWCA

● 김지희 간사

여성친화기업 릴레이 협약 ‘우리는 일촌’

서귀포Y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11월 9일 서귀포Y 회관에서 여성친화기업 릴레이 협약 ‘우리는 일촌’을 가졌다. 모두 8개 기업체가 ‘우리는 일촌’에 참여하였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지원하는 업무에 공동으로 협력하고자 함에 있다.

순천 YWCA

● 김아라 간사

YWCA/YMCA 공동기도주간 예배

순천Y는 YWCA/YMCA 공동기도주일을 맞아 함께 공동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다. 세광고회 이은식 목사의 ‘청년이 세상의 희망이다’라는 말씀과 YWCA 직원들의 특송 등 다양한 예배순서로 진행되었고, 친교의 시간이 마련되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Y-틴 오라또래아

순천Y는 11월 5일 순천청소년축제에 참여하였다. 순천Y Y-틴 오라또래아는 순천청소년축제에서 북한어린이분유돕기를 홍보하고 기금마련을 위하여 쿠키를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 11월 3일~4일 2011년 순천Y 이사 수련회

여수 YWCA

●이경진 간사

전남여성취업·창업박람회 개최

여수Y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여성취업 활성화를위해 2011년 전남여성취업·창업박람회를 10월 27일 여수진남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하였다. 채용관, 창업관, 홍보관, 컨설팅관, 체험관, 편의시설등 90여개 업체가 참여한 당일 박람회에는 약 3,000여명의 구직자가 참여하였다. 예비 사회적기업 타악 연희원 (아귀)팀의 취업성공을 지원하는 퓨전연주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한 취업정보제공과 함께 여성들의 축제의 장이 되었다.

- 10월 11일 안전한 먹을거리 교육
- 10월 25일 '애들아, 밥먹자' 캠페인
- 10월 25일 씩크머니데이 경제골든벨

익산 YWCA

●서정현 간사

'애들아, 밥먹자' 캠페인

익산Y는 익산 지원중학교 축제를 맞아 가래떡을 나누는 행사를 가졌다. 안전한 먹을거리와 식품첨가물 등에 관한 자료도 함께 전시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자기 몸을 위해 선택하는 주체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전북합창제 '소리아 놀자' 공연

익산YWCA합창단은 전북대삼성문화회관에서 열린 전북합창제 '소리아 놀자'(전북합창연합회 주관)에서 4:30과 7:00 2차례의 공연을 가졌다.

제주 YWCA

●서정현 간사

2012 민들레회원증모개화식

제주Y는 지난 11월 16일 제주Y 강당에서 "2012민들레 회원증모개화식"을 진행하였다. 100여명의 제주Y회원들이 모여 진행된 개화식에서는 개화선언을 비롯하여 사례발표, 주제 강연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행사가 끝난 후 트랙별 모임 등을 통해 2012년 민들레회원증모개화운동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주Y 회원개화운동은 1,500개의 민들레 개화를 목표로 총 50일간 활동하게 되며 YWCA와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은 연중 가입이 가능하다.

- 11월 22일 여성 잡 카페
- 11월 26일 제3회 정기연주회 '민들레들의 합창'

서부
지역

논산 YWCA

●김화선 간사

논산YWCA 창립10주년 기념행사 "가을스케치"

논산Y는 창립10주년을 맞이하여 10월 25일 논산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논산시민과 회원들과 함께하는 가을 스케치 행사를 하였다. 바디워십 선교단과 민들레중창단의 중창과 태평무의 공연이 펼쳐졌으며, 창단된 논산Y 산들연극팀의 "늦은행복" 연극을 하였다. "토요일은 밤이 좋아"를 불렀던 김종찬 목사와 함께하는 찬양의 밤으로 창립10주년 행사의 대미를 장식하였다.

- 10월 19일 다문화 씩크머니 교육

제천 YWCA

● 류인숙 간사

이웃사랑점심나누기

제천Y는 11월 2일 화산동에서 '이웃사랑점심나누기' 행사를 하였다. 하나 웨딩홀 조국현 대표가 매주 모든 실비를 지원하는 이 행사에 제천Y는 200여분에게 맛있는 자장면을 대접하였다. 자장면을 맛있게 드시는 어르신들의 표정을 통해 봉사의 기쁨은 배가 되었다.

직원역량강화 워크숍

제천Y는 11월 10일 업무를 종료하고 덕산면 보육센터에서 1박2일간의 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YWCA 목적과 정체성의 이해 주제강의, 각 분임별 토론 후 발표, 소통의 시간, 아침산책, 지역 활동가의 자세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조치원 YWCA

● 홍진영 간사

Y-틴 직업적성프로그램 토론회

조치원Y는 10월 8일 Y틴 직업적성프로그램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Y-틴은 각 조의 대학생 멘토들과 함께 자신의 직업을 소개하며 미래의 모습을 가상으로 설계하여, 자신의 직업을 위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린이 동요대회

조치원Y는 10월 22일 연기군 지역의 꿈나무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동요대회를 개최하였다. 아이들의 좋은 인성과 어린이들에게 알맞은 밝은 가사들을 가지고 이번 동요대회를 통해서 아이들의 재능을 발견하고, 어린이들이 동요를 즐겨 부를 수 있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 10월12일 취약계층 소비자교육
- 10월22일 연기군 어린이 동요대회
- 10월29일 Y틴 직업적성프로그램

청주 YWCA

● 정미향 간사

청주YWCA 여성영화제

여성영화제는 여성의 삶을 진실하게 드러내는 영화로 우리가 나아가 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영화들을 상영해왔다. 올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라는 주제 아래 '헤어드레서'를 개막작으로 문을 열고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여성감독들의 드라마, 다큐멘터리, 단편 및 실험 영화들을 골고루 상영하였다. 회원, 시민 그리고 대학생들 총 400명의 관객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에듀피아에서 마쳤다.

청주YWCA합창단 40주년 기념 음악회

청주Y는 10월 17일 청주예술의 전당에서 청주YWCA 합창단 40주년 기념 음악회를 열었다. 찬송과 대중가요메들리를 아름다운 화음으로 담아 500명의 관객들에게 들려주어 음악회 이름처럼 사랑 더 드리는 행복한 시간을 갖게 해주었다.

충주 YWCA

● 김애영 간사

어린이녹색환경인형극

충주Y는 10월 13일 은솔어린이집에서 늘푸른인형극단의 어린이녹색환경인형극 "녹색나라의 비밀" 첫번째 공연을 하였다. 본 공연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환경의 소중함을 알아갔고, 어린이들이 생활 속에서 환경 보호를 실천할 것을 기대해보며 앞으로도 공연을 지원할 예정이다.

녹색나눔장터마당

충주Y는 10월 15일 금릉소공원에서 녹색나눔장터마당을 열었다. 여름방학 경제교육 후속프로그램으로, 그동안 경제교육에 참여한 어린이들과 인근 초등학교와 아파트 주민 등이 참석한 장터마당을 통하여 경제개념을 배우며, 수익의 일정부분을 기부하는 시간을 통하여 나눔을 함께 배우는 기회가 되었다.

- 10월 14일 새일센터직종설명회
- 10월 22일 유소년문화체험, 어린이환경체험

2011 <한국YWCA> 주요목차 색인

(제목/필자/월/쪽)

연간·기획

Y다운 청년성을 살리자	편집실	1·2월	09
20대, 자신만의 스토리가 필요하다	김능현	1·2월	12
청년정의운동, '자치'가 정의다	양선희	3월	08
내 이름은 39등이 아니라 김철수다	청년운동팀	3월	11
위기에 처한 청소년 교육 패러다임	전효관	3월	14
스스로 매기는 나의 가치와 점수	정린	4월	07
YWCA안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 나의 멘토	편집실	4월	10
공생과 소통이 미래의 잠재력이다	김경윤	4월	12
꿈 꿀 수 있는 권리	정린	5월	06
직업이 아닌 꿈과 진로를 찾아서	강하자	5월	08
그래도 희망이 있기에 함께 합니다	고성혜	5월	10
대학진학에 대한 이상한 엄마의 고백	김기동	6월	06
'위대한 거부'로부터 시작되는 청년정의	심한기	6월	09
이제 다시는 역주행을 말하지 않으리라	문정우	6월	12
비싼 등록금, 몰락한 대학	고부응	7·8월	06
가나다에서 인문학으로 (길희성 박사 인터뷰)		7·8월	09
희망을 보게하는 우리들의 방식	이소영	7·8월	12
청년이상과 직업현실의 균형찾기	하중강	9월	06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김용출	9월	09
Y-틴 동아리로 꿈을 만들어가다	북부지역Y-틴	9월	12
결혼의 의미	장해숙	10월	06
결혼의 경제학	양정선	10월	09
젠더적 관점에서 보는 결혼	변화순	10월	11
행복의 차원	전병주	11·12월	06
세상의 변화는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	송대규	11·12월	09
내가 나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이은선	11·12월	12

YWCA 현장

되찾은 영성, 울림

하나님의 정의 앞에 나의 정의를 내려놓기	강교자	3월	06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복된 존재	이천진	4월	06
정의는 책임이며 사랑	강교자	5월	13
생명정의	장운재	6월	15
청년정의	장운재	7·8월	15
그 길은 광야라	장운재	9월	15
다시 산다면 / 정의는 평화의 열매입니다	장운재 / 이천진	11·12월	16

죽인

석세스 프로그램	최윤미	1·2월	26
썩크머니 프로그램	최윤미	1·2월	28
Y의 새로운 리더, 설레는 포부	편집실	3월	18
제1차 YWCA정의포럼	편집실	4월	15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YWCA 생명살리기 운동	이원걸	4월	16
일본 대지진 피해 돕기 거리모금에 나서다	박용욱	4월	18
한국YWCA 창립80주년 감사예배와 축하잔치	편집실	5월	14
제2차 YWCA정의포럼	편집실	5월	20
제15회 YWCA가 뽑은 좋은 TV 프로그램 상 시상식	편집실	5월	20

제3차 YWCA정의포럼	편집실	6월	16
제2기 애들이 밥먹자 캠페인	생명운동팀	6월	18
제4차 YWCA정의포럼	편집실	7·8월	16
YWBS인터넷 방송국_1기를 보내며 2기를 맞이하다	편집실	7·8월	18
제5차 YWCA정의포럼	편집실	9월	16
제13차 한·일YWCA 청소년협의회	청년운동팀	9월	17
한국YWCA여성지도자상	편집실	10월	20
제38회 YWCA 전국대회	편집실	10월	13
YWCA 20대 실무자 연대모임	편집실	10월	23
제6차 YWCA정의포럼	편집실	11·12월	18
성인지정책 모니터링운동과 한국YWCA 운동	박동순	11·12월	20
2011 2차년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을 마무리하며	최지혜	11·12월	30

Y에 바치는 연가

떠뫼한 사랑의 자기장이 흐르는 YWCA	오영란	3월	26
믿음과 사랑이 샘솟는 우물	김형규	4월	22
사랑을 알려준 사람들	주정식	5월	22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 대전YWCA	김종균	6월	20
시천YWCA와 시작한 제2의 인생	유명아	7·8월	21
YWCA와 되살이를 이루는 농사꾼 이야기	고만술	9월	22
세 번의 인연	전용욱	10월	26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수원Y와의 인연	김준혁	11·12월	30

세계 속의 한국YWCA

세계YWCA 2011 취리히 대회	원영희	1·2월	42
여성에 대한 폭력에 맞서다	세계대회 준비팀	3월	35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국제운동 펼쳐야	세계대회 준비팀	4월	36
세계 경제정의 실현의 요람, 청소년 금융교육	세계대회 준비팀	5월	34
북한인권개선 국제운동	세계대회 준비팀	6월	24
세계YWCA 본부 훈련을 마치고	최윤영	9월	34
배고픈 내 이웃은 어디?	이은영	10월	36
모금은 사랑입니다	원영희	11·12월	37

행복한 불면

친환경농산물과 무상급식	생명운동팀	3월	25
밥상에서 시작되는 외침	이현운	4월	20
YWCA생명운동으로서 EM활용		5월	36
EM, 이제 집에서 만들어 자유롭게 활용하세요	최형선	6월	27
EM효공의 기적을 기대해봅시다	손은하	7·8월	35
소금그것이 알고 싶다	이종민	9월	31
EM 최초 발견, 히가 박사를 만나다	여진경	10월	34
북한 인주의 어린이를 내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평화운동팀	11·12월	34

회원이야기

새로운 부모학교의 시작	여진경	3월	28
여름아름 생일을 축하하며, Y에 품은 꿈	전국회원Y메시지	4월	24
서로 합하면 큰 힘	오은자	5월	24
사랑의 물음 보냅니다, 힘내세요!	김현희	5월	25
기부와 나눔 경험하는 미래세대 리더 키우기	김명란	6월	22
썩크머니만의 특별한 매력	방민정	6월	23

여성주간행사 행복하데이를 마치고	이정숙	7·8월	22
여성친화도시로 가는 길	고명정	7·8월	23
100년의 비전을 품고	최양님	9월	24
순례자의 길, 세상을 살리는 길	홍진영	9월	24
'아빠요리교실'로 가족사랑을 키워가요	우명애	10월	32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송지연	10월	33
2011년 한 해를 돌아보며	박영선	11·12월	24
2011년 한 해를 돌아보며	박정순	11·12월	25

시사·문화

시·시인·시집

자탄(自歎) 이항	고두현	1·2월	02
들 천양희	고두현	3월	02
가던 길 멈춰 서서 윌리엄 헨리 데이비스	고두현	5월	02
참외 김영남	고두현	6월	02
참 좋은 당신 김용택	고두현	7·8월	02
부부 함민복	고두현	9월	02
동담 이문재	고두현	10월	02
너를 위하여 김남조	고두현	11·12월	02

이슈따라잡기

질병의 세계화와 지속가능한 축산	권영근	3월	32
추문으로 떠도는 '춘향이'의 족쇄에서 벗어나기	이강보미	4월	28
한국의 원자력 소비자들이 고민해야 할 숙제	진상현	5월	26
미소금융과 햇살론, 서민을 위한 경제비전인가?	이호기	6월	28
고대 의대생 성추행사건, 여성단체가 나서야 할 때	권부남	7·8월	36
우리들의 환경홀대 자연재해, 치솟는 물가로 다가오다	이은영	9월	26
학력보다는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	오성삼	10월	30
2011 노벨평화상, 여성을 선택하다	김지숙	11·12월	26

문화공감

YWCA겨울방학 프로그램·특강		1·2월	31
'두분, 토론', 회화화가 주는 희한한 재미	김지숙	3월	30
YWCA 청개구리와 세시봉 신드롬	김지숙	4월	30
엄마 신드롬, 엄마의 행복을 부탁해	김지숙	5월	28
동물쇼의 그림자를 보라	김지숙	6월	30
한류에 맘을 연 그들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마음 열기	김경희	7·8월	24
서바이벌TV프로그램, 서바이벌 세상에서 살아남기	김지숙	9월	28
대학생, 일본소설에 빠져들다	한기호	10월	28
애정남, 공평한 '물'의 부재가 낳은 환호	황정현	11·12월	28

Y-돋보기

2011년에...	장차현실	1·2월	21
너 대단한 스마트폰아, 내 가족 돌리도	장차현실	3월	29
불비가 촉촉이 내린다. 아이가 비를 보며 말한다	장차현실	4월	35
오래된 가족 사진첩	장차현실	5월	33
꽃이 핀다	장차현실	6월	35
밤산책	장차현실	7·8월	34

마고 할미	장차현실	9월	30
밤이 무르익는다	장차현실	10월	27
동면	장차현실	11·12월	36

신간소개

식품주식회사 외		1·2월	25
나는 즐겁다 외		3월	38
낙타는 왜 사막으로 갔을까 외		4월	32
창세기 역주 외		5월	30
아주 작은 것을 기다리는 시간 외		6월	32
공공도서관 문 앞의 아만인들 외		9월	33
세상은 왜 싸우는가		10월	37
내 젊은 날의 일기 외		11·12월	33

기타

새해를 여는 시

새해 하얀 일지(日誌)에	김재화	1·2월	03
-창립 89주년 축하시			
한국YWCA 89년 역사를 돌아보며	김재화	4월	02

신년사

2011년 신묘년 희망찬 새해를 기원합니다	강교자	1·2월	/07
2011년 새해 덕담 한마디	편집실	1·2월	16

기획

아름드리 기자단 모집	편집실	1·2월	15
인터넷방송국YWBS 1기 운영진 소개	편집실	3월	23
제38회 전국대회를 앞두고	편집실	9월	36
이임인사	강교자	10월	04
신임회장 인사말	차경애	10월	05

특집

박에스터 선생 10주기를 추모하며	이종경	1·2월	32
제27회 세계YWCA 총회	정동신 외	7·8월	26

보고

제55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 활동보고와 뉴욕 스토리	이슬비	4월	38
복지사업단 결산보고		4월	46

안내

한국YWCA 인터넷방송국 개국 안내		1·2월	35
제15회 YWCA가 뽑은 좋은 TV 프로그램 상		3월	17
제9회 한국여성지도자상 후보 추천 접수		5월	31
세계YWCA&YMCA 국제친선 및 기도주간		11·12월	15

성명서

구제역 사태 해결을 바라는 한국YWCA입장		3월	39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을 규탄하는 한국YWCA 성명서		5월	43

월간 <한국YWCA> CMS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CMS 신청·기간연장 문의 02)774-9702

지난 한 해 동안 월간<한국YWCA>에 보내주신 사랑과 관심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2012년에도 구독자 여러분께 더욱 도움이 되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강교자	강인순	고영의	고의순	김기동	김명희	김신숙	김완희	김용자	김효선	명진숙	방해자	방현주
배영자	백수경	백영옥	성지희	송현숙	신미옥	신홍근	신희운	유기옥	윤혜원	이경순	이남복	이명혜
이수련	이영균	이영순	이영옥	이은영	이일선	이재경	이종경	이중선	이천진	임국이	장옥순	전희순
정동신	정유진	정진자	정희영	지순경	차경애	최미숙	최영선	최은식	최효숙	축령복음병원(신희운)		한미미
한영수	한진이											

출판사 감사인사

한국YWCA에 책을 보내주신 출판사에 감사인사 드립니다.
보내주신 책은 <신간소개>란에 소개하고 있으며, YWCA활동가들의 지적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가 가교출판 / 가나출판사(기린원) / 강같은 평화 / 개암나무 / 거인 / 경진 / 계간(아시아) / 계림 / 고래실 / 고래이야기 / 고슴도치 / 공공문화개발센터URART / 교문사 / 교보문고 / 교양인 / 굿 / 포메이션 / 그루북스 / 그르메 / 그린북(황금가지) / 글고은 / 글담출판사.인디고 / 글로세움 / 글썬산책 / 기획출판 거름 / 김&정 출판컨설팅 / 김영사 / 꿈을이루는사람들 나 나눔의 집(함계연은) / 나무생각 / 나무숲 / 난장이 / 낮은산 / 내인생의 책 / 네모북스 / 넥서스 주니어 / 노란돼지 / 노마드북스 / 노바(성림, 지식더미) / 녹색평론 / 누보 / 눈과 마음 / 뉴스앤조이 / 느린걸음 / 늘푸른 소나무 / 니 / 니키앤프랜 다 / 다다북스 / 다른세상 / 다른우리 / 다림 / 다만북스 / 다산북스 / 달리 / 달팽이출판 / 당대 / 대교출판 / 대교출판 / 대교출판 / 대한기독교서회 / 더난출판 / 더북컴퍼니 / 더숲 / 도깨비 / 돌베개 / 동녘 / 동문선 / 동산사 / 동아시아 / 동연 / 동학사 / 두드림 / 두란노 / 두리미디어 / 들녘(느림보) / 디자인하우스 / 따님 / 따비 / 땅에쓰신글씨 / 또 하나의 문화 / 뜨인돌 / 뜨인돌어린 라 라이온북스 / 라이프플러스인서울 / 랜덤하우스중앙 / 랜덤하우스코리아 / 로텔(럭스미디어) / 루덴스 / 룩스미아 / 리더북스 / 리더스하우스 / 리베르 / 리수 / 리스컴(중앙책) / 리얼북 / 리젬 마 마더북스 / 마음의숲 / 마인드북스 / 말글빛남 / 메이데이 / 멘토press / 멘토출판사(노란우산) / 멜론 / 모아북스 / 몬스터플래닛 / 문공사 / 문원 / 문학동네 / 문학동네(달)알마 / 문학세계사 / 문학에디 / 문학의 문학 / 문화미래 이프 / 물푸레 / 무직마운트 / 미디어미래연구소 / 미디어월 / 미래문화사 / 미래엔컬처그룹(아이세움) / 미래와경영 / 미래의창 / 미술문화 / 민들레 / 민음사 출판그룹 / 민음인(황금가지, 판미동) / 밀리언 하우스 바 바다출판사 / 바람의 아이들 / 바람출판사 / 바보새 / 바오밥 / 바우하우스 / 바움 / 바이북스 / 반디(백간교육) / 베스트프렌드 / 베이비북스 / 보보스(작은씨앗) / 봄날 / 부키 / 부글 / 부표 / 북마크 / 북멘토 / 북북서 / 북센스 / 북스넷 / 북스토리 / 북코프 / 북클릭 / 북폴리오 / 북하우스 / 북하우스 퍼블리셔스 / 분도출판사 / 뷔스 / 브니엘 / 브라가서비스 / 브레인월드(한문화) / 블루미디어 / 비아북 / 비전과리더십 / 비전북 / 비즈니스북스 / 비즈앤비즈 / 비즈니스맵(한국물가정보회사) / 비체 / 비타브레인 / 뿌리깊은나무 사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 / 사파리 / 사피엔스21 / 산논출판사 / 산책자 / 산하 / 살림 / 살림터 / 삼성출판사 / 삼인 / 삼천리 / 상수리나무 출판사(맥스미디어) / 새만화책 / 생각과느낌 / 생각비행 / 생각의나무 / 생각창고 / 산티 / 서광사 / 서돌 / 서해문집 / 섬쟁북 / 섬아이 / 성안당(새앙뽕) / 성하출판 / 세계사작가세계 / 세마치 / 세용출판 / 세종서적 / 세창출판사 / 소금나무 / 소나무 / 소소리 / 소와 / 당소메이트(원앤원북스) / 소피아 / 슬라피데출판사 / 솔로몬북 / 솔출판사 / 순정아이북스 / 스마트비즈니스 / 스마트비즈니스 / 스토리하우스 / 승산 / 시공사 / 시공주니어 / 시금치 / 시금치 / 시냇가에 심은나무 / 시대의 창신 진리탐구 / 실천문학 / 쌤 앤 파커스 / 씨네티 / 씨앗을 뿌리는 사람 / 씨크뱅크 / 씨크스마트 야 아고라 / 아라크네 / 아롬미디어 / 아르코스 / 아르케 / 아름다운사회 / 모르문디 / 아우라 / 아이네오 / 아이엘코텐츠 / 아이프렌드 / 아지북스 / 아침기획 / 아침이슬 / 아카넷 / 아트하우스 / 애니북스 / 애플미디어 / 애플북스 / 애플비 / 야스미디어 / 양철북 / 어드북스 / 어린린이 / 어린린이 / 어린이책이야기 / 어버아웃북 / 언어세상 / 에듀웰 / 에버리치출판 / 에이지티 / 에코리브르 / 에코의 서재 / 엘빅미디어 / 여름숲 / 여백미디어(꼬마침터) / 여성중앙 / 여우별 / 여우오줌 / 여우와두루미 / 여우담여이연 / 역사비평사 / 열대림 / 열린책들 / 열림원 / 열음사 / 영교출판 바우술 / 예담 / 예림당 / 예문 / 오토북스 / 오피니티 / 율 / 율리브나무 / 웅기장미 / 와우북스(와우라이프) / 와이미디어 / 와이즈아이 / 운주사 / 웅진출판(시작) / 원민출판사 / 월간 가이드프스트 / 월간 싱클레어 / 웰북 / 웰스프링 / 위즈엄하우스 / 유림문화사 / 은행나무 / 이너북 / 이레미디어(담푸스) / 이마고 / 이미지박스 / 이상미디어 / 이숲 / 이아스 / 이유 / 이지북(자음과모음) / 이지출판 / 인물과사상 / 일송미디어 / 일송북 / 일월서각(북비, 황금고래) / 일출북 자 자유로운 상상 / 작은나무가주는 희망 / 작은책 / 작은책방 / 장서가 / 장수하늘소 / 재미마주 / 전나무숲 / 정은문고 / 제우스 / 젠북 / 조이웍스 / 종합출판 / 좋은교사 / 좋은책만들기 / (주)가나출판사(기린원) / (주)가이더스 / 주간코믹 팬티 / (주)기탄교육 / (주)길벗어린이 / (주)길벗어린이 / (주)더큰컴퍼니 / (주)도서출판 길벗 / (주)도서출판 보리 / (주)도서출판 삼인 / (주)두레스 경영연구소 / (주)매경출판 / (주)명진출판 / (주)문학고지성사 / (주)미래M&B / (주)베이스캠프 / (주)북21 을파소 / (주)불지사 / 동쪽나라 / (주)브레인 / (주)비전비엔피(이덴슬리벨) / (주)비전엔피.비전코리아 / (주)비전하우스 / (주)사계절출판사 / (주)서울문화사 / (주)성서원 / (주)수도프리미엄엔지니어링 / (주)스타북스 / (주)신원문화사 / (주)안그라픽스 / (주)에스오디커뮤니케이션(책그릇, 어부의 그물) / (주)영어정복자 / (주)중앙출판사 / (주)창비 / (주)크레듀 / (주)타라티피에스 안티쿠스 / (주)파라북스 / (주)한겨레출판 / (주)한글교육 / (주)한즈미디어 / 중앙books / 지상사 / 지식노마드 / 지식여행 / 지식의 샘 / 지양어린이(키드북) / 지혜의 눈 / 지훈출판사 / 진명출판사 차 참관경제연구소 / 창작마루 걸 / 채우리 / 책과함께 / 책보세 / 책씨 / 천권의 책 / 천둥거인 / 청개구리 / 청년사 / 청년의사 / 청림출판(추수밭) / 청솔 / 청아출판사 / 청어람 / 청어람주니어 / 청포도 / 초록개구리 / 추수밭 카 쿠오레 / 쿠포북 / 쿨란출판사 / 큰나무 / 클리어마인드 / 타고북스 / 토네이도 / 통나무출판사 파 파란자전거 / 파란하늘 / 파란하늘 / 파랑새 / 파피에 / 판테온하우스 / 팜파스 / 퍼플레인 / 페이퍼로드 / 평단문화사 / 평사리 / 평화나무 / 포이에마 / 플라리스 / 플라북스 / 푸른길 / 푸른나무 / 푸른숲 / 푸른역사 / 풀빛 / 프렌즈 / 프리월 / 플래닛 미디어 / 플러스에감 하 하늘고래 / 하늘아래 / 학교재 / 학교재 / 학인사 / 한국경제신문 한경BP / 한국문화사 맵스터 / 한술수북 / 한스컨텐츠 / 한울림 / 해냄출판사 / 해누리 / 해솔 / 해외나무 / 행복우물 / 행복한 나무 / 행복한 나무 / 행복한 책읽기 / 헤라 / 현대문학 / / 현문미디어(생각하는백성) / 현암사 / 호미 / 호이테크북스 / 홍림 / 홍성사 / 홍시 / 홍진P&M / 환경과생명 / 환타웍스 / 황금물고기 / 황금부엉이 / 황소걸음 / 후마니타스 / 휴머니스트 / 흐름출판 / CUP / Notebook / AATNB / BOOK 21 / E*PUBLIC / for book / good Book / ISLE출판사(솔라피데) / JNC커뮤니티 / MBC프로덕션 / media 2.0

사랑의 봉유보내기



YWCA (사) 한국 YWCA 연합회



YWCA 사랑의 봉유보내기

성금 보내 주실 곳
한국 YWCA연합회
전화 386-17-000052



YWCA (사) 한국 YWCA 연합회



다
감사합니다
만서 영아영아들
복년명 우리 아이들의
환상입니다.

마음을 모은 저금통을 YWCA로 보내주세요.
이 저금통 하나면 복한 아이들에게
분위 단통을 보낼 수 있습니다.

IOPE

“속탄력을 채우면
나이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속탄력, 나이를 밀어내는 힘 아이오페 슈퍼바이탈

다시 탄탄하게 차오르는 피부를 원한다면 속탄력을 채워 피부 속 시간을 되돌리세요. 아이오페 슈퍼바이탈은 아멘토 플라본 추출물과 슈퍼오메가를 통해 피부에 생명력을 채우고, 피부 속부터 탄력을 공급하여 탄탄하고 윤기 나는 피부로 되돌려줍니다. 경험해보세요. 속탄력이 채워지면 피부는 다시 젊어집니다.

- 아멘토 플라본은 끈적 추출물로서 피부에 생명력을 더해 주어 피부 속부터 탄탄하게 만들어줍니다.
- 슈퍼오메가는 오메가3에 슈퍼항산화 시스템을 더해 탄력은 물론 화사한 빛까지 되찾아줍니다.



My Favorite Beauty Shop
ARITAUM
www.aritaum.com

•아리따움에서 아이오페를 만나세요 •고객상담실 080-023-5454 www.iope.co.kr

한국YWCA의 전국 회원YWCA 가족

가

강릉 033. 651. 1385
 거제 055. 682. 4950
 경주 054. 772. 8141
 고양 031. 919. 4040
 광명 02. 895. 1966
 광양 061. 762. 0012
 광주 062. 524. 3511
 김해 055. 332. 6000

나

남양주 031. 577. 7762
 남원 063. 632. 7002
 논산 041. 736. 7393

다

대구 053. 652. 0070
 대전 042. 254. 3035
 동해 033. 531. 3007

마

마산 055. 246. 8746
 목포 061. 242. 1611

바

부산 051. 441. 2221
 부천 032. 668. 9700

사

사천 055. 833. 9981
 서귀포 064. 762. 1400
 서울 02. 3705. 6000
 서천 041. 951. 6400
 성남 031. 701. 2501
 속초 033. 635. 8663
 수원 031. 252. 5111
 순천 061. 744. 7990

아

안동 054. 854. 5482
 안산 031. 483. 6536
 안양 031. 455. 2700
 양산 055. 367. 1144
 여수 061. 654. 2161
 울산 052. 247. 3520
 원주 033. 742. 6090
 의정부 031. 853. 6332
 익산 063. 857. 8910
 인천 032. 424. 0524

자

전주 063. 224. 5501
 제주 064. 711. 8325
 제천 043. 646. 6009
 조치원 041. 865. 2432
 증평
 진주 055. 753. 6133
 진해 055. 542. 0020

차

창원 055. 283. 9488
 천안 041. 575. 0961
 청주 043. 265. 3700
 춘천 033. 254. 4878
 충주 043. 848. 3240

타

통영 055. 641. 2537

파

파주 031. 945. 5998
 평택 031. 651. 7701
 포항 054. 274. 4444

하

하남 031. 793. 7771



YWCA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保全)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